

대한민국 무너지고 있는가?

송년 정국진단 좌담회

“20세기 문명사학자 아놀드 토인비는 ‘역사는 도전과 응전으로 기록된다’며 ‘문명은 외부 요인이 아니라 내부 요인에 의해서 무너진다’고 설파했다. 국가도 마찬가지다. 지금 대한민국은 어떠한가.

‘한강의 기적’을 일으켜 배고픔을 해결했고 세계 10대 경제국가에 진입해 ‘K’가 세계를 풍미하고 있다. 그런데 내부에서 ‘이게 나라냐’는 외침이 들려오고 있고 ‘이러다가 나라가 내부로부터 무너지고 결국에 가서는 자살하는 것이냐’는 심각한 우려가 터져 나오고 있다. ‘국가자살’ 처음 들어보는 이야기다. 심상치 않다. 최근 정치권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상을 보면 한마디로 아노미(anomie 가치혼돈상태) 그 자체다. 무언가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된 것 같다. 토머스 홉스가 말한 ‘만인 대 만인의 투쟁 상태’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인가? ‘대한언론’은 12·3 비상계엄 1주년을 맞는 시점에서 연말 정국진단 좌담회를 마련했다.” (편집자註)

▲ 이규진(총괄부회장, 사회) : “최근 대장동게이트 1심 재판 후 검찰의 항소포기가 이루어져 나라가 시끄럽습니다. 도대체 검찰에서 왜 항소포기를 했고 그 항소포기의 의미가 무엇이고 결과는 무엇인지 우선 말씀해 주시지요.”



이규진 총괄부회장

▲ 서옥식(부회장) : “검찰의 항소포기는 한마디로 ‘이재명 무죄 만들기’의 시작입니다. 이재명은 대통령 당선 전 8개 사건 12개 혐의로 5개 재판을 받고 있던 피의자였습니다. 대통령 당선 후 모든 재판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지난 10월31일 대장동게이트 첫 번째 1심 판결이 났습니다. 김만배 등 5명은 비교적 중형이 선고됐는데 이재명 대통령은 제외되었습니다. 항소기간인 1주일 이 지나가기 직전 검찰이 항소를 포기해 이재명은 이 재판에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뒤에 알려진 이야기입니다만 일선 담당 검사들은 항소를 강력히 주장했으나 위로부터 사실상 항소포기 지시가 내려와 더 이상 죄를 물을 수 없게 되었지요. 이 건으로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이 사퇴하는 사태가 벌어졌고요.”



서옥식 부회장



이도선 주필

▲ 이도선(주필) : “문제는 이 판결로 대장동 일당이 취득한 범죄 수익금 7천8백억원을 환수받지 못하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성남시민에게 돌아가야 할 천문학적 수익금이 그대로 범죄자의 주머니에 남게 되었습니다.”

벌써 범죄자들이 검찰이 추징 보전하고 있는 재산을 풀어 달라고 법적 절차를 밟고 있다는 이야기가 들립니다. 이번 판결에서 유의미한 것 한 가지를 굳이 꼽는다고 한다면, 판결문을 보면 성남시 수뇌부, 성남시장 등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을 지칭하는 단어가 수백차례 등장한다는 점입니다. 이게 무얼 의미합니까? 이재명이 대장동게이트의 수괴라는 점을 간접적으로 지적한 것이지요.”

▲ 사회 : “항소포기는 유죄를 다투지 않겠다는 검찰의 의사표시인 줄은 알겠으나 그렇다면 이 것으로 모든게 끝입니까?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 서 : “방법은 없지 않으나 과연 실현 가능성이 있겠느냐가 문제지요. 우선 가장 좋은 방법은 내란특검처럼 특검을 도입하는 것입니다. 어차피 내년 10월 없어질 검찰이기에 권위가 땅에 떨어진 마당에 더 이상 정상적인 방법에 의존하기보다 특별한 방법을 채택하는 거지요. 문제는 국회를 장악한 민주당이 특검을 거부하면 방법이 없어요. 다음은 국정조사입니다. 국회가 국정조사를 통해 사실을 규명하고 결과에 따라 법적 절차를 밟는 방법입니다. 민주당에서 국정조사 요구를 하고 있는데 이는 검찰이 대장동 사건을 조작 기소했다는 주장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진실규명하고

는 거리가 있습니다. ‘이재명 무죄’를 만들기 위한 정치적 꼼수에 불과합니다. 그래도 사실을 이슈화한다는 의미에서 동조해 볼 만합니다. 마지막으로 국민의힘 나경원의원이 발의한 ‘대장동 범죄자금(7천8백억원) 환수 특별법’같은 특별법을 만드는 것입니다. 좋은 아이디어이긴 한데 이 또한 민주당이 거부하면 방법이 없습니다. 국회 과반수 절대 의석으로 입법부를 장악한 민주당의 무소불위의 힘을 어찌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2~3면에 계속>

“대장동 범죄수익금 7800억 환수 못해”

<1면에 이어서>

▲ **이** :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얼마 전 ‘이재명 재판 중지법’을 내놨다가 대통령실로부터 제지를 받고 황급히 거둬들이는 일이 있었지요. 이재명의 죄 자체를 없애려고 하는데 재판 중지를 내놓은 것은 엇박자거든요. 재판중지는 재판을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것으로 범죄 사실 자체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재판을 속개할 수 있습니다. 이 대목에서 배임죄를 없애려는 의도가 드러났어요. 대장동 사건의 가장 큰 부분은 배임죄입니다.

형법과 형사소송법을 개정해 배임죄 자체를 없애버리면 대장동 범죄자들은 면소판결을 받게 됩니다. 죄가 없어졌으니 처벌도 재판도 함께 없어집니다.”

▲ **사회** : “면소판결 이야기가 나왔는데 도대체 이재명의 죄를 없애고 법적절차를 없애는 방법은 무엇 무엇이 가능한가요?”

▲ **서** : “첫째가 방금 전에 말한 법에서 죄 자체를 삭제하고 면소판결을 받는 방법입니다. 국회에서 법 개정을 통해야만 가능합니다. 둘째가 이번에 우리가 보았던 검찰의 항소포기입니다. 더 이상의 법적 절차를 중단하는 것입니다. 셋째가 공소취하입니다. 검찰이 기소한 것을 스스로 취하하면 재판부가 다룰 수가 없습니다. 넷째가 공소기각인데 재판부가 직권으로 기소가 잘못되었다고 기소를 기각하는 것입니다. 네가지 모두가 면죄부를 준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 **이** : “현재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은 법원이 헌법 84조 소추면제 규정을 들어 모두 중단 상태에 있는데 민주당 집권세력이 모든 방법을



국민의힘이 지난달 17일 대장동 항소포기 외압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촉구 기자회견을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열고 있다.

배임죄 없애면 범죄자 면소판결

동원해 임기 후에까지 법적 절차를 이뤄지지 않도록 수단을 부리면 어쩔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항소포기 사건에 대해 전국 검사장 18명이 반발하고 나선 것처럼 집권세력의 무모한 작태에 대해 공식사회가 저항하고 국민이 이에 호응해 들고 일어난다면 모를까...”

▲ **서** : “현 집권세력은 정말 집요합니다. 항소포기에 이의를 제기한 검사장들을 평검사로 발령을 낸다든지, 아예 ‘검사 파면법’을 만들어 검사들을 무릎 꿇리고 권력에 순치시키려고 까지 합니다. 검사는 행정부 소속이긴 하지만 준 사법기관이라고 해서 일반 공무원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범죄수사 등 인권과 직접 관련된 일을 하기 때문이지요. 자기들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자기 뜻대로 움직여 주지 않는다고 이처럼 마구 난도질 하는 것

은 헌법 위반이고 결국 범치주의를 짓밟는 행위입니다.”

▲ **사회** : “그렇지 않아도 검찰을 개혁한다는 명분으로 검찰 조직을 아예 공중분해시키고 있는데 이 한가지만으로도 헌법 위반이고 근본적으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허무는 것이 아닌가요?”

▲ **이** : “이 모든 것이 결국은 독재를 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겉으로는 민주주의 한다고 하면서 실제로 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봅니다. 민주당 집권세력이 지금 하는 것을 보면 검찰은 중국식으로 만들고, 입법·행정·사법권을 마음대로 움직이려하는 것은 꼭 베네수엘라 차베스 독재 같아요. 독재자들이 뭐 독재하겠다고 말하면서 독재하나요? 히틀러가 그랬고 차베스가 그랬고 모택동, 스탈린, 시진핑, 김일성 등 공산독재도 겉으로는 ‘법에 의한 지배’를 외쳤지요. 아마 이재명도 이러한 독재에 마음이 끌리는 것 같습니다. 이를 막는 것은 주권자인 국민이 들고 일어나는 수밖에 없습니다. 저항권 말입니다.”

▲ **사회** : “정부가 국무총리실에 ‘헌법준중정부혁신TF’라는 기구를 만들었는데 정체불명입니다. 알고 보니 75만 전 공무원을 상대로 이른바 12·3 계엄 전후해서 행적을 조사하겠다는 것입니다. ‘내란조사TF’인 셈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 : “그건 헌법을 존중하는 것도

마무리씨 권영섭



아니고 정부를 혁신하는 기구도 아닙니다. 공무원을 상대로 핸드폰을 조사한다니요, 대한민국이 경찰국가입니까? 그리고 동료들을 서로 신고하도록 신고센터도 설치할 모양입니다. 공무원들을 서로 이간질시키려는 건가요? 그래서 공무원들의 성분을 조사하려는 목적인가요? 75만 공무원을 사찰할 목적인가요? 줄을 세워 무엇 하려고요? 이건 정부를 파괴할 목적이 아니라면 독재를 위한 사전작업으로 밖에 생각할 수 없습니다.”

▲ **서** : “‘관 옵티콘’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영국의 공리주의 철학자 제레미 벤담이 창출한 용어인데 원형 감옥을 만들어 가운데 감시탑에서 죄수들을 감시하는 동시에 죄수 상호간에 서로를 고발시키도록 한 특수한 감옥을 말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감시 검열하도록(inspection of everyman against everyman)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아니 공무원들 pc를 검열하겠단, 핸드폰도 제출하라. 이건 75만

‘대한언론’이 선정한 2025년 4자성어

영망진창 (億網疹瘡)

<선정배경> 우리가 흔히 일상생활에서 쓰는 ‘영망진창’이라는 단어는 “가닥을 잡을 수 없을 정도의 수많은(億) 그물(網)이 얽힌 모양이 마치 흥역(마마疹)이나 종기(매독瘡) 부스럼이 마구 번져있는 상태와 같다”라는 뜻에서 왔다. 지금 한국 사회는 집권여당이 무소불위 끝간데 없이 벌이는 내란몰이와 특검소동으로 갈등과 혼란이 야기되고 있고 민생은 서서히 무너져 내리고 있다. 이제는 나라의 안위마저 걱정해야만 하는 상태에 이르게 됐는데 어찌 나라가 영망진창이 되었다고 하지 않겠는가?

‘내란몰이’로 정치실종…혼돈 계속

검찰조직 공중분해는 헌법위반-법치주의 파괴

<2면에 이어서>

공무원을 잠재적 범죄 용의자로 만들고 자기들끼리 서로 고발하라는 발상입니다. 전체주의로 가겠다고 작정한 모양입니다.”

▲ 사회 : “또 하나 현 정권이 시도 하는게 공무원법을 개정해 이른바 복종의무 제도를 폐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관이나 상사로부터 내려오는 지시나 명령이 불법 부당하다고 생각되면 항거하라는 거지요.”

▲ 이 : “이 또한 괴상한 발상입니다. 아마도 계엄과 관련해 어쩔 수 없이 지시를 따를 수 밖에 없었던 군인이나 공무원들의 태도를 문제 삼기 위한 것 같은데 문제는 누가 명령과 지시의 위법성 여부를 판단하느냐는 거지요. 하위직 공직자가 위법이라고 주장하면서 지시 명령을 거부할 때 공무원 사회는 견장을 수 없이 무질서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특히 군대에서 이같은 일이 벌어질 것을 생각하면 끔찍합니다.”

▲ 사회 : “이러한 것들이 모두 ‘내란몰이’의 결과이고 후유증이라고 볼 수 있는데 도대체 12·3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프레임 한 것은 누구입니까?”

▲ 서 : “지금 정치권이고 언론이고 모두 내란 내란 하는데 너무 어이가 없습니다. 어느 사전을 찾아봐도 내란은 ‘비권력자가 권력을 쟁취하기 위해 폭력을 동원해서 일으키는 반란’으로 되어 있습니다. 12·3 계엄을 잘 살펴보세요. 최고 권력자인 대통령이 권력을 쟁취하기 위해 폭력을 동원해 반란을 일으켰다? 앞뒤가 맞지를 않습니다. 군대를 동원하고 포고문을 선포하고 국회에 난입하는 등 권력을 잘못 행사(권력남용)한 것은 맞지만 내란은 결코 아닙니다. 내란법에 보면 12개 이상 지역에서 행정력이 마비될 정도로 사회적 혼란이 야기되었을 경우를 내란으로 상정하고 있습니다. 12월 3일 밤 총성이 한방이라도 울렸습니까? 아니면 서울 시내가 마비될 정도의 폭력사태가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다룬 헌법재판소가 내란 범죄는 빼라고 했던 것입니다.”



▲ 이 : “선전선동에 능한 민주당 사람들은 프레임 씌우기에도 선수들이에요. 자기들끼리도 좌표 찍고 프레임 씌워 (예: 수박) 정치적으로 공격하지요. 앞으로 이러한 저질 포퓰리즘은 계속 될 것입니다.”

▲ 사회 : “내란몰이는 언제쯤 끝날까요. 국민들이 지겹다고 할 때도 된 것 같은데…여의도에서는 내년 6월 지방선거 때까지 계속될 것이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 서 : “그렇지 않아도 최근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한 민주당 쪽 공격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종로4가 종묘 인근에 계획된 세운상가 고층빌딩 재개발을 두고 김민석 총리까지 나서 견제구를 던지고 있습니다. 민주당 사람들이 언제부터 종묘에 대해 관심과 애정을 가졌는지는 모르겠으나 세운상가 지역을 가보고 하는 이야기인지 모르겠습니다. 완전히 슬럼화 되어 주민들의 불만이 매우 높습니다.”

▲ 이 : “종묘하고 세운상가 지역이 180m나 떨어져 있고 대법원도 재개발이 적법하다고 주민 손을 들어 줘는데 민주당은 무조건 안된다는 식의 정치공세를 펴고 있습니다. 김민석 총리는 할 일이 그렇게 없어 공무원들 대동하고 현장을 방문해 고층건물이 들어서면 기가 빨린다니 주술적인 이야기까지 하고 다니니 참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런 행동들이 내년 지방선거를 겨냥해 오세훈 서울시장을 견제하려는 꼼수가 훤히 들여다 보입니다. 하여튼 정권 차원의 오세훈 견제와 정치적 공세로 지방선거가 조기 과열되는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 서 : “어떤 면에서는 총선보다 이번 지방선거가 중요합니다. 만약 국민이 민주당 정권을 이번 선거에서 심판한다면 역설적으로 ‘내란몰이’를 끝장낼 수 있습니다. 서울시장 선거를

▲ 서 : “정부는 협상이 잘 끝났다고 일반적으로 선전하는데 글썽요… 원자력 추진 잠수함 연료를 공급받기로 했고 현금 투자 2천억 달러를 매년 2백억 달러씩 분납하기로 했다고 마치 성공한 것처럼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악마는 디테일에 숨어 있다고 매년 2백억 달러 현금 투자가 가능한지(우리 금융당국이 추산한 달러 운용 능력은 연 65억 달러 정도), 그리고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10년간 330억 달러(48조원),

민주당, 입법-행정-사법 장악…독재 야욕

의식해 오세훈 서울 시장을 과도하게 견제하는 것을 보더라도 내년 6월 지방선거는 정말 중요합니다.”

▲ 이 : “민주당으로서는 지난번 2022년 지방선거에서 패배를 설욕하는 의미도 있지만 독재로 가는 로드맵을 완성한다는 의미도 있어 어느 때보다 세게 나올 것이 확실합니다. 지방선거를 이기면 즉각 개헌으로 들어가 현재의 자유민주주의 헌법체제를 모두 바꿔 버릴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베네수엘라 식 사회주의를 도입할 것입니다. 바로 법에 의한 독재체제를 세우는 것입니다.”

▲ 사회 : “정치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韓美 간 관세협상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경제와 민생에 끼치는 영향력이 크니까요. 관세 협상이 끝난 것은 맞습니까? 끝났다면 그 손익계산서는 어떻게 됩니까?”

무기 구매비 10년간 250억 달러(36조원)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지 등등 미심쩍은 것이 한 두가지가 아닙니다.”

▲ 이 : “정부가 발표한 팩트 시트(설명서)도 미국 쪽에서 나오는 이야기와 조금씩 다르고…원자력 잠수함 건조를 우리나라에서 한다는 내용이 팩트 시트에는 없습니다.”

정부 발표를 어디까지 믿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왜 양쪽이 서명한 합의 문서를 모두 공개하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국가 간 관계도 그렇고 정부와 국민 간에도 신뢰가 제일 중요합니다. 아전 인수 격으로 유리한 내용만 발표하면 훗날 국민이 진실을 알게 되었을 때 분노하게 됩니다. 군주민수(君舟民水 : 강물이 배를 띄울 수도 있지만 앞을 수도 있다는 故事)의 교훈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이재명 정부 75만 공무원 ‘통신검열’ 한다

국무총리실 총괄 TF설치...내년 2월 인사조치



서옥식
본회 부회장
전 연합뉴스 편집국장

이재명 대통령 정부가 이 대통령이 공동피고인으로 있는 대장동 일당의 범죄수익 7800억원을 국가가 환수하지 못하도록 검찰 항소를 차단한 데 이어 12·3계엄을 내란으로 규정하고 ‘내란’ 가담자를 색출·징계·처벌한다며 75만 공직자들의 PC와 서면자료, 휴대전화를 ‘검열’한다고 한다.

국무총리실은 지난 11월 11일 49개 정부기관에 ‘내란행위정보센터’와 함께 내란 가담·협조 공무원을 조사하기 위한 ‘헌법준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를 설치, 12월 12일까지 ‘내란 투서’를 접수하고 내년 1월 31일까지 조사를 실시한 뒤 2월 13일까지 인사조치 등 상응하는 ‘처벌’을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국무총리실에는 총괄TF가 꾸려졌다. 내년 2월 13일은 6·3 지방선거를 불과 3개월 20일 앞둔 시점으로 선거를 의식한 공직자 길들이기란 지적이 없지 않다.

조사 범위는 2024년 12월 3일을 기점으로 직전 6개월부터 직후 4개월까지 총 10개월간 비상계엄(내란)을 모의·실행·정당화·은폐한 행위다. 조사 과정에서 업무용 PC와 서면 자료는 모두 열람할 수 있으며, 개인 휴대전화는 전원 자발적 제출을 유도하되 혐의가 있는데도 제출거부 등 협조하지 않으면 수사 의뢰 등 형사상 수단까지 고려할 수 있다는 것이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내란수사’와는 별도로 정부 차원의 조사를 실시, ‘내란 가담·협력·동조’ 사실이 밝혀지는 공무원에게는 직위해제, 대기발령, 승진 불허와 형사적 책임 등 불이익을 주겠다는 것이다. 대상은 국가정보원 등 대통령 직속 기관을 제외한 49개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75만명에 이른다. 부처마다 10명 내지 50명의 TF를 구성해 총 661명의 인력이 투입된다.

이런 방침이 발표되자 공직사회는 크게 동요하고 있다. “무엇을 문제 삼을지 모르겠다. 혹시 별건 수사로 불이익을 주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부



감시 사회의 세 공산 독재자들. 왼쪽부터 김일성, 스탈린, 마오쩌둥.

터 “공무원이 사적으로 친지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치 이야기도 못하느냐”라는 체념섞인 불만, “내란은 비권력자가 폭력을 동원해 통치권자의 권력을 빼앗으려 일으키는 반란으로 법

(政敵) 뿐아니라 공무원, 군대 나아가 전 국민을 철권통치한 악명높은 독재 권력자로는 히틀러, 스탈린, 마오쩌둥, 김일성세습왕조, 폴포트, 차베스 등을 들 수 있다.

12·3 계엄 전후 10개월 내란동조 혐의 조사

학교과서와 사전에서 배웠는데 당시 윤석열이 비권력자이며 폭력을 행사했다 단 말이나”라는 반응이 나왔다. 특히 ‘내란행위정보센터’를 두고는 “동료가 동료들, 하급자가 상급자를, 상급자가 하급자를 고자질하는 무고(誣告)와 인신공격이 난무할 것”이라며 “공직사회를 경쟁자를 음해하는 투서가 난무하는 밀고·감시 사회로 만드는 것은 공산국가나 하는 짓”이라는 우려가 나왔다. 공무원들은 “조사가 끝나는 내년 2월 13일까지 국장급 이하 인사도 멈춘다는 의미”라며 “손발을 묶고 어떻게 새 정부 정책을 추진하겠느냐”며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국민의힘은 “과거 경기도지사 시절 사고를 치면 전화기(휴대전화)를 뺏기면 안된다고 했던 이 대통령이 공직사회를 네 편, 내 편으로 가르기 위해 공무원 전화까지 뺏지겠다고 한다”면서 “공무원의 핸드폰을 그렇게 들여다보려면 먼저 최고위 공무원인 자신의 휴대폰부터 파헤쳐 보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집권과 권력유지를 위해 ‘감시와 검열’이라는 수단을 통해 자신의 정적

특히 스탈린은 자신에게 방해가 되는 인물을 제거하는 데 있어선 강박증이라고 부를 수 있을 정도로 감시에 집착했다. 스탈린은 젊은 시절부터 자신에게 걸림돌이 되는 사람은 아무리 무고한 자라도 배신자로 지목해 제거했는데, 여기에는 헌병대를 통한 감시와 별건(別件) 수사가 활용됐다. 예컨대 1938년 자신을 비판한 정치 국원 부하린을 국가전복혐의로 총살, 숙청할 때 내건 명분 중에는 1229명의 고급 와인과 11편의 포르노 영화, 호화관 해외 수입 의류, 고무로 제작된 자위기구 및 다량의 현찰을 소지하고 있었다는 인식공격성 혐의까지 꼼꼼하게 추가했다.

감시사회를 설명하는 유명한 용어로 판옵티콘(Panopticon)이란 것이 있다. 영국의 공리주의 철학자 제레미 벤담(Jeremy Bentham)이 정적(政敵)이나 반대파 죄수를 효과적으로 감시할 목적으로 1791년에 설계한 원형 감옥에서 유래했다. 판옵티콘은 그리스어로 ‘모두’를 뜻하는 ‘pan’과 ‘본다’는 뜻의 ‘opticon’의 합성어로 번역하면 ‘모두 다 본다’는 뜻이다. 즉 모두를

감시한다는 것이다. 감옥 중앙에 높은 감시탑을 세운 후, 죄수들의 방은 감시탑의 돌레를 따라 원형으로 만들도록 설계됐다. 중앙의 감시탑은 항상 어둡게 하고 죄수들의 방을 밝게 비추면 죄수들은 감시자의 시선이 어디로 향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항상 감시받고 있다고 느끼며 이로 인해 행동을 조심하게 된다는 것이다. 더러는 감옥이 부과하는 ‘성과’를 올리기 위해 서로가 서로를 감시, 고발하게 된다.

따라서 이재명 정부처럼 거의 모든 공무원을 ‘잠재적 범법자’로 몰아 감시, 검열한다면 아마 한국이야말로 현대판 ‘판옵티콘’사회로 전세계의 조롱을 받을지 모른다. 이 판옵티콘은 1975년 프랑스 철학자 미셸 푸코(Michel Foucault)의 저서 ‘감시와 처벌(Discipline and Punish)’에 다시 언급되면서 디지털시대에서도 주목을 끌게 되었다. 푸코는 이 책을 통해

판옵티콘을 모든 감시체제의 원형(原形)으로 소개하고 있다. 즉 정보화 시대를 맞아 관료사회, 군대, 경찰, 학교, 병원, 기업, 심지어 교회 등 모든 조직에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지금 많은 기업들도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이라며 인공지능(AI) 등 정보통신기술(IT)을 활용하여 직원의 행동을 감시하고 있으나 이러한 감시가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경우가 많아 사회적인 논란이 되고 있다.

이재명 정부의 75만 공무원에 대한 일괄적인 통신 검열과 감시는 위헌과 위법 소지도 안고 있다. 우리 헌법 제 18조와 통신비밀법 제1조는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사적 영역에 속하는 개인 간의 의사소통을 보호하자는 취지이다. 휴대폰에는 개인적인 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정부가 이를 별건으로 검사하는 경우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다. 통신의 비밀은 서한, 전화, 전신 등 모든 통신 형태에 적용되며, 통신의 내용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될 수 없다.☞

대통령-경찰청장 ‘여순 반란군’ 옹호

“대한민국 정체성-국군 정합성 부인 사과해야”



김 화
본회 이사 · 편집위원
전 경향신문 편집위원

이제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연속성을 걱정하는 시대가 됐다. 유엔 승인 하에 합법적으로 건국한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국군의 정합성을 부인하고 대한민국을 전복해서 남로당 국가로 만들려는 반란군을 현직 대통령과 경찰청장 대행이 옹호한 것을 자유민주주의의 대한민국 국민들은 받아들일 수 있을까. 노무현 전 대통령은 “1948년 10월 19일 전남 여수에 주둔한 국방경비대 제14연대에 침투한 남로당 세력은 남로당 제주도당의 무장봉기를 진압하라는 정부의 명령을 거부하고 ‘인민공화국수립 만세’ ‘미군 철퇴’ 등의 성명을 발표하고 반란을 일으켰다”고 했다. 김구도 “반란을 일으킨 군인과 군중”이라고 성명을 발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0월19일 페이스북 북에 “1948년 10월 19일 국방경비대 제14연대의 2천여명이 제주 4·3 사건 진압명령을 거부했습니다. 국민을 보호해야 할 군인이 국민에게 총부리를 겨눌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부당한 명령에 맞선 결과는 참혹했습니다”라고 썼다. 반란군 옹호 발언은 유재성 경찰청장 대행에 와서 더 나아갔다. 지난 10월 30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야당의원의 질문에 “제14연대 여순반란사건은 반란이 아니다. 경찰의 과거사 서술 방식도 재검토하겠다”라고 대답했다.

대한민국 행정부 수반이요,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과 치안총수인 경찰청장대행의 글과 말이라고는 전혀 믿어지지 않는다. 대한민국 정체성은 ‘대한민국 건국’으로부터 시작된다. 대한민국 건국을 긍정하는가 부정하는가의 잣대는 제14연대 여수·순천반란을 ‘반란’으로 보느냐, ‘항쟁’으로 보느냐에 달려 있다. 대통령과 경찰청장대행은 제주 남로당 도당의 4·3무장폭동을 진압하라는 대한민국 정부의 정합적이고 정당한 명령을 거역하고 토착 좌익세력과 합세해서 경찰서 등 관공서를 습격·방화·살인·약탈을 저지른 반란군을 옹호하고 국군을 폄훼



1948년 10월 여순 사건 진압 후, 반란군 협조자를 가려내기 위해 주민들을 한곳에 모아놓았다.

했다. 이 대통령의 글을 보고 조갑제씨는 “여수·순천 14연대 좌익반란사건을 왜곡, 국민을 옹호하기 위한 정의로운 항명이라고 미화하고 국군의 정당한 진압을 국가폭력이라고 매도한 글을 과연 진짜 대통령이 썼을까. 대통령을 참칭하고 몰래 쓴 글이 아닐까”라는 글을 썼다. 정규제씨도 자신의 페

트북에 “여순반란사건에 대한 대통령의 인식은 아주 잘못된 것”이라며 “국가폭력이란 말은 좌파들의 전유물이다. 국가는 당연히 폭력을 독점하여 경쟁하는 폭력을 제압하고 처벌한다”는 글을 올렸다. 이 대통령의 말대로 한다면 주민희생이 걱정되면 반란군이 국토를 점령해도 국군은 보고만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국가안보를 위해서는 긍정적인 요인과 함께 희생이 따른 부정적인 요인도 함께 수용해야 한다. 반란은 당연히 국가권력으로 진압해야 나라가 유지된다.

위정자들 역사적 사실·진실 왜곡해선 안돼

이스북에 “여순반란사건에 대한 대통령의 인식은 아주 잘못된 것”이라며 “국가폭력이란 말은 좌파들의 전유물이다. 국가는 당연히 폭력을 독점하여 경쟁하는 폭력을 제압하고 처벌한다”는 글을 올렸다. 이 대통령의 말대로 한다면 주민희생이 걱정되면 반란군이 국토를 점령해도 국군은 보고만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국가안보를 위해서는 긍정적인 요인과 함께 희생이 따른 부정적인 요인도 함께 수용해야 한다. 반란은 당연히 국가권력으로 진압해야 나라가 유지된다.

좌파세력들은 역사의 평가가 끝나고 시대정신도 바뀌었는데 마르크스의 사회주의 범주 구(舊)체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새 질서를 확립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의 글과 경찰청장대행의 말이 나온 것 같다. 더욱 한심한 것은 국가안보에 직결된 이런 문제를 집요하게 이 슈화시키지 못하는 우파의 담론 빈곤

및 언론의 외면과 국민의 무관심이다. 아무리 민주주의 정부라해도 역사상 ‘착한 정부’는 없다. 착한 정부로 이끄는 역할은 언론의 몫이요, 임무다. 그러나 지금 한국 언론은 양비론이 횡행한다. 진실과 정의는 두 개가 아니고 오직 하나다. 양비론은 권력 눈치 보는 언론의 궁색하고 비겁한 호구책일 뿐이다. 남로당의 행패는 참혹했다

1948년 10월19일 오후 2시 여수 병영의 14연대 남로당 세력은 하사관 지창수를 즉석에서 연대장으로 추대하고 무기고와 탄약고를 장악한 후 반란군에 맞선 김일영 김순철·이봉규 소령 등 대대장 3명을 비롯해 소위 이상 장교 21명을 잔인하게 살해했다. 그리고 연병장에 모여 ‘미군 철퇴’ ‘인민공화국 수립만세’ 성명과 “우리는 조국을 미 제국주의에 팔고 있는 이승만 정부를 분쇄할 것을 맹세 한다”는 결정서를 발표했다. 살해당한 장교들은 총을 맞고 양팔이 늘어져 덜렁 거리는 상태로 뛰어가다 쓰러졌고, 99식 총검이 복부를 관통해 창자가 흘러내린 상태였다고 생존한 장교들은 증언했다.

순천경찰서를 점령하고 서장을 묶어서 시내로 끌고 다니며 눈알까지 뽑는 린치를 가하며 잔인하게 살해했다. 그 서장 아들은 성장해서 언론인이 되었고 우파 논객으로 활동했다.

반란군은 전북 남원을 향해 북진했다. 그러나 순천 학구 삼거리에서 제4연대 진압군의 저지로 더 이상 나가지 못하고 순천시내로 돌아가 곡

성·보성·구례 등지로 흩어졌으며 10월21일 이후 토벌작전이 강력하게 전개되자 지리산으로 들어가면서 가는 곳마다 경찰서와 지서에 방화하고 경찰관과 우익인사를 학살했다. 나환자 수용시설인 여수 애양원 원장이며 일제치하에서 끝까지 신사참배를 거부했던 손양원 목사 두 아들은 단지 목사 아들이란 이유로 토착좌익인 아들 친구에게 살해됐다.

현지 좌익인사들의 우익인사·경찰 및 그 가족들을 상대로 한 보복 살해는 잔인했다.

정치가 국가를, 이념이 사회를 지배한다 해도 역사적 사실과 진실이 왜곡되고 호도돼선 안 된다. 위정자들의 언행은 대한민국 정체성의 안전핀을 뽑아버린 셈이다. 이 상태로 갈 때까지 간다면 모든 것을 잃는 다음 후회할들 무슨 소용 있겠는가. 대통령과 경찰청장 대행의 사과 소식은 아직 듣지 못했다.☐

K-반도체 ‘슈퍼사이클’에 즐거운 비명

경제 포커스

올 16%성장 전망…AI혁명 반도체시장 견인



조희곤
본회 편집위원
전 내외경제 논설위원

한·미 관세협상이 극적 타결됐다. 올해 글로벌 반도체 업계는 2018년 이후 7년 만에 맞이하는 새로운 ‘슈퍼 사이클’(초호황)의 중심에 서 있다. 이번 슈퍼사이클의 가장 큰 특징은 인공지능(AI)이라는 강력한 수요 동력이다. 과거 PC(2000년대)와 스마트폰(2010년대)이 주도했던 것과 달리 2025년은 데이터센터와 AI 인프라가 시장을 견인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단순한 경기 회복이 아니라 AI혁명이 반도체 수요의 패러다임 자체를 바꾸고 있는 형국이다.

국제시장조사기관 IDC와 WSTS의 최신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글로벌 반도체 시장 규모는 전년 대비 15~16%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주목할 점은 메모리 반도체의 급성장이다. D램 시장의 평균판매가격(ASP)이 15% 상승하고, 고대역폭 메모리(HBM: High Bandwidth Memory)와 같은 프리미엄 제품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메모리 부문이 전체시장 성장을 주도하고 있다.

“줄을 서시오 줄을”…글로벌 빅테크 기업 앞다퉀 데이터센터 증설

이런 가운데 글로벌 시장이 다시 K-반도체를 주목하고 있다. 최근 AI 기술이 생활 전반에 급격히 확산되면서 핵심 부품인 고성능 메모리 반도체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글로벌 메모리 반도체 투톱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밀려드는 주문에 대응하기 위해 생산라인을 최대한 가동하고 있으며, 업계는 이 상황을 ‘반도체 슈퍼사이클의 재도래’로 평가하고 있다. 반도체 슈퍼사이클은 공급보다 수요가 크게 앞서가며 가격이 장기간 상승하는 국면을 의미한다.

현재 엔비디아, AMD, 구글, 메타 등 주요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앞다투어 차세대 AI서버와 데이터 센터 증설에 나서고 있다. 고성능 메모리로 무장한 한국 반도체 업계에 절호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로고. <연합뉴스 제공>

기회가 찾아온 셈이다. 업계는 그동안 침체를 거치며 구조조정과 기술혁신을 거듭해 왔고, 그 결실이 이번 호황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반도체 슈퍼사이클을 잉태한 핵심은 단연 생성형 AI다. 이러한 생성형 AI의 부상은 반도체 시장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 그 결과

글로벌 반도체 판도는 한국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

내년도 삼성과 SK영업이익 첫 100조 시대 도달할 듯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AI향 메모리 수요 폭발로 내년 사상 첫 영업이익 100조원 시대를 열 전망이다. AI

내년 삼성-SK 영업이익 첫 100조 시대 예상 메모리 공급 부족영향 D램 가격 ‘천정부지’

HBM이라는 새로운 반도체 기술을 세상에 각인시켰다. HBM은 기존 D램 칩을 층층이 쌓아올려 데이터 전송 경로를 넓히고 짧게 만들어 기존 제품보다 훨씬 빠른 속도를 구현한다. 일종의 입체형 데이터 고속도로다. 방대한 데이터를 초 단위로 학습하고 처리해야 하는 AI 서버에는 사실상 필수 부품으로 자리잡고 있다.

성능이 곧 경쟁력이 되는 시장에서 HBM은 가장 중요한 무기가 되고 있는 것이다. 현재 이 HBM 시장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세계 점유율 90% 이상을 장악하고 있다. 때문에 글로벌 기업들이 한국산 메모리 확보를 위해 줄을 서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HBM 공급은 젓GPT, 구글 버드 등 초거대 AI모델을 운영하는 기업들에게 안정적인 사업 성패를 좌우할 정도로 결정적 요소가 되고 있다. 한국 기업들이 AI시대의 심장이라 할 수 있는 메모리를 독점하다시피 하면서

센터와 고성능 칩에 필수적인 HBM 뿐만 아니라 D램과 낸드플래시 등 메모리 제품 전반이 공급 부족으로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어서다. 양사의 주요 메모리 제품은 내년 생산 물량까지 사실상 완판 상태다. 이에 따라 양사의 영업이익이 급증할 것으로 보인다. 글로벌 투자은행(IB) 모건스탠리는 최근 내놓은 ‘메모리-최대 가격 결정력’ 보고서에서 내년 삼성전자의 영업이익 전망치를 116조4480억원으로 제시했다. 올해 삼성전자의 영업이익 전망치는 37조원으로 예상되는데, 무려 3배 이상으로 늘어나는 셈이다. AI향 메모리인 HBM을 내세워 글로벌 메모리 시장을 장악한 SK하이닉스 역시 내년 영업이익이 100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노무라증권은 내년 SK하이닉스의 영업이익 전망치로 99조원, 2027년에는 이보다 30% 가량 높은 128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쌀독에 바닥이 보인다”…메모리 공급 부족에 D램 가격 천정부지

글로벌 메모리 시장은 이미 이례적인 공급 부족에 직면해 있다. 이 시장은 통상 2~3년 주기로 호황과 불황을 오가며 경기 순환 사이클을 보이고 있는 특성이 있다. 시장 조사업체 트렌드포스에 따르면 지난 3분기 말 기준 세계 D램 제조업체의 평균 재고는 3.3주로 역대 최저치다.

특히 메모리산업이 역대급 호황을 맞았던 지난 2017~2018년의 3~4주 수준과 비견될 정도로 재고 부족이 심각한 상황이다. 오죽하면 대만의 메모리 모듈 대기업인 ADAT(威剛)의 천리바이(陳立白) 회장이 “쌀독에 바닥이 보인다”며 최근의 메모리 부족 사태를 빗대었을까.

이런 메모리 공급난에 가격은 덩달아 뿔박질을 거듭하고 있다. D램익스체인지에 따르면 PC용 D램 범용제품인 DDR4 8Gb 가격은 지난 10월말 6.3달러로, 2018년 12월(7.25달러) 이래 7년 만에 최고치다. 시장 조사기관

들은 4분기에도 D램 가격이 20%가량 추가 상승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AI시장이 급성장하면서 HBM에만 몰리던 수요가 일반 서버용 D램 시장으로 확대되고 있고, 이는 범용 PC용 및 모바일 용 D램 공급부족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삼성전자는 글로벌 AI 데이터센터 투자 경쟁으로 인한 메모리 반도체 공급난 속에 서버용 메모리 칩 가격을 최대 60% 인상한 것으로 알려졌다. 로이터통신은 최근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삼성전자가 일부 메모리 제품의 계약 가격을 지난 9월 대비 최대 60% 올렸다”고 보도했다.

AI 열풍이 반도체 업황을 다시 끌어올리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실적 전망이 사상 최고 수준으로 치솟고 있다. 증권가에서는 두 회사가 내년 코스피 상장사 전체 영업이익의 절반 가까이 차지할 것이라 분석까지 나온다. ☞

‘난장판 국감’ 당쟁의 적패몰이 판박이

국가 정체성-파워엘리트의 도덕성 균열



박석흥
본지 논설위원장
전 언론법학회 감사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된지 1년, 계엄 선포한 20대 대통령은 구금되고 21대 대통령이 2025년 6월 4일 취임, 대한민국은 386 운동권이 정권을 장악한 새로운 나라가 되었다. 이 정치변혁으로 <국가정체성>·<파워엘리트의 도덕성>·<피로 맺은 동맹>이 흔들려, 건국 헌법의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벼랑 끝으로 몰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야만의 정치’로 민주주의 관습과 구체제가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기 때문이다.

386의 폭주와 보수가 격돌한 2025년 국정감사는 난장판이었다. 추미애, 전현희, 최민희, 서영교, 최혁진, 정청래 의원의 막말과 기행이 쏟아진 이재명정부 첫 국정감사는 정적을 깨달 시켰던 조선시대 당쟁의 적(敵)패몰이 판박이었다.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변칙감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최민희의원 김영란법위반 시비에 이어 김현지 대통령 제1부속실장 소환을 두고 여야가 다투었던 운영위원회도 여야의원의 배치기로 마감했으나, 국감은 조선의 정체(停滯)와 망국의 주범인 당쟁의 데자뷰(Déjà Vu)였다. 국회는 대통령 사법처리와 당과 내각 고위직의 부패와 김영란법 위반을 쟁점으로 진흙탕 싸움을 벌여 386정치의 민낯을 드러냈고 위원장들의 독단과 변칙 운영으로 독설·저주·부패·협잡만 무성했다.

<추미애 법사위>는 위원장이 앞장서 대법원장 청문회, 나경원 법사위 간사 선임 무효화, 대법원장 국감장이석 불허, 대법원 현장 검증 등을 결정해서 대법원장과 대법원을 겁박하고, 사법부 독립성을 침해했다. 야당에 법사위원장을 맡겼던 법사위 운영 관습도 박차버린 2025년 법사위 국감은 조희대 대법원장을 85분간 추궁하고 헌정사상 최초로 대법정·대법관 집무실 등을 의원들이 점령군처럼 휘저었다.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 대법관들의 재판기록 열람을 확인하겠다는 민주당의 주장이 관



11월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추미애 위원장이 의사를 두드리고 있다.<연합뉴스제공>

주의 국가를 지향하는 국가로 의심받고 대한민국 국민이 미국과 캄보디아에서 범죄자로 추방되었다. 2025년 9월 미국에서 한국인 300여명이 수감채워 추방되고 10월 캄보디아에서도 한국인 보이스피싱 범죄자 64명이 수감채워 전세기로 송환됐다. 2024년 12월 계엄을 내란으로 규탄하며 변혁을 내건 386 정치를 남미 포퓰리즘과 중국·북한의 전체주의를 수렴하는 위험한 실험과 숙청이라는 지적이 미국에서 제기됐다. 11월초 대장동사건 1심 항소 포기에 대한 검찰의 집단 반발도 기록할만한 사건이다.

국감 혹평과 검찰 집단 반발 파동 후 대통령실은 내란특검 3번째 수사 기간 연장에 이어 군지휘부와 고급 공무원 물갈이 등 강력한 적폐청산을 지시했으며 야당은 여당의 대법원개혁·배임죄 폐지·386 정치세력의 역사왜곡·여당의 ‘이재명 재판’ 대응전략에 대한 전면전을 선포했다. 마주 달

법사위, 대법원을 겁박·사법부 독립성 침해 원칙 무시 ‘국회 진흙탕 싸움’ 국민여론 싸늘

철된 법사위원회 대법원 현장 검증을 법조계는 <입법 권력의 폭동>(<입법 내란>)이라고 비방했다.

법조 3류가 반대한 대법원·검찰개혁 논쟁 때문에 파행을 거듭했던 법사위 국감은 <조희대의 사법쿠데타>(<추미애>), <상기하자 조희대의 난>(<정청래>) 등 선동적인 구호와 대법원장을 도요토미로 조롱한 패널(최혁진)이 등장하는 막장드라마도 연출했다. 국감중 의원 발언 통제와 변칙 운영 개선 등이 거론됐으나 다수당 독단의 변칙 운영은 오히려 확산되었다. 국감을 막장드라마로 만든 22대 국회의원의 폭언 기행은 무엇 때문에 일어난 것인가? 김형준 배재대 교수는 하버드대 레비츠키·지블렛교수가 주장한 <선출 권력이 독재로 나아가는 과정의 네 가지 위험 신호>가 22대 국회 국감에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첫째, 집권당이 민주주의의 규칙을 지키지 않고 헌법까지 무시하는 일탈을 했다. 둘째, 민주당은 야당 존재와 합법성을 인정하지 않고, 국민의힘을

‘국가의 적’ ‘범죄자’로 낙인찍어 악마화하고 해산을 강요했다. 셋째, 민주당은 다수 의석을 정치적 폭력 도구로 활용했다. 넷째, 관습으로 고착된 국회 운영위원회 위원장 배분과 3권분립도 무시했고 국감 증인까지 묵살했다고 김형준 교수는 분석하고 386 정권의 전체주의화 위험을 지적했다. 정치학자들은 추미애·최민희 위원장의 완장 찬 권력 행태가 묵인돼서 소수의 권리가 무시됐다고 분석하며 “2025년 국감은 독선 국감”이라고 비판했다. 성낙인 헌법학자(전 서울대총장)는 “이런 부끄러운 국정감사는 끝내야 한다”고 비판했고, 다수 언론이 국감무용론을 국감 기간중 제기했다.

대한민국은 제2차 대전 후 출범한 국가 중 산업화와 선진화를 제일 먼저 성취한 나라다. 개발도상국을 돕는 원조국가에 합류했으며, 교역량이 세계 10위 국가가 되었다. 한국군은 유엔군으로 봉사하고 있으며 젊은이들은 국제 경쟁에서 선두를 석권하고 있다. 그러나 18 대통령에 이어 20대 대통령도 탄핵한 후 대한민국이 전체

리는 열차와 같은 여야의 대결 국면이 사고를 낼 것만 같다. 국감중 정치쟁점이었던 배임죄 폐지·대법원 개혁·재판중지법 추진 등에 대해서 국민의 시각은 좋지 않았다. 원칙을 무시한 졸속정책·국민을 속이는 선전선동·정치인의 거짓말에 대한 국민의 반응을 여당은 무겁게 인식해야 할 것이다.

10월 18일 대통령실이 1948년 10월 19일 여순 반란사건을 “부당한 명령에 맞선 합당한 항명”으로 발표한 것은 역사적 사실과 다르다는 반격을 받았다. 20대 대통령 선거에서 “대한민국이 친일 세력과 점령군의 합작으로 출발했다”는 한 후보자의 거짓 주장에 버금가는 중대 발언으로 설득력 있는 해명이 있어야 할 것이다. 국민은 정치가의 거짓말 시비에 염증을 느끼며 파괴적 혁명의 공포 정치에서 벗어나고 싶어한다. 언론은 386 정치변혁을 감시하고 바른 방향으로 선도해야 할 것이다. 지금은 싸움보다 성찰이 필요한 시점이다. ☐

1977년

중화학 공업화, 수출 100억달러 전인

자본 집약적 산업구조로 전환 ‘한강의 기적’ 일궈

대한언론 특별기획
박정희 경제기적 재조명 ⑤



최승희 박사
아주대국제대학원 초빙교수
전 박정희대통령기념재단 이사장



1976년 5월 31일 포항제철 제2 용광로 화입식서 박정희(앞쪽) 대통령과 박태준(뒤쪽 오른쪽) 사장이 불을 땀기고 있다. 빈손으로 출발한 포항제철은 ‘박정희 모델’을 상징하는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했다.

이 목표는 전통적인 경제 사고로는 상상할 수 없는 것이었으며, 그의 전체 내각의 강한 반대에 부딪혔다. 새로운 목표는 비선형적 질적변화를 중시하는 창발적 사고에 기반한 것으로 선형적 예측 모델보다 민간기업의 창발적 기능을 우선시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중화학 산업화전략은 놀라운 성공을 거두었다: 수출은 예정보다 4년 앞선 1977년에 100억 5천만 달러에 도달했고, 1인당 소득은 1978년에 1,330달러를 기록하며 목표를 초과 달성했다. 1981년에는 수출이 208억 8천만 달러로 급등했고, 1인당 소득은 1,636달러에 달하며 한강의 기적이라는 한국판 나비효과의 토네이도를 일으켰다. HCI 정책은 한국을 노동집약적 산업에서 자본 집약적 산업구조로 전환시켰으며, 박정희 대통령의 비선형적이고 창발적인 경제도약 비전을 구현했다.

박정희대통령은 항상 나비효과의 뿌리를 통찰했다. 제주 5·16 도로에서 시작해 경부고속도로, 경인고속도로 이어지는 물류시스템의 혁명이 뒤주 장사를 위한 바람을 일으키듯 대한민국 물류 교통혁명을 가져왔고, 전 세계기 비웃던 포항제철의 건설로 철의 씨앗을 심어 훗날 중화학 산업 대국의 기초를 놓았다. 60년대 말에서 70년대 초, 고속도로와 포철의 날갯짓이 오늘날 산업 대국, 대한민국의 나비효과를 창출하였다.

박 대통령의 경제철학은 농업사회가 10개의 수레를 생산하던 것을 100개로 확장하는 당시 주류경제학의 선형적 발전 모델을 거부했다. 대신, 그는 수레가 기차, 자동차, 비행기, 우주선으로 진화하는 질적 변혁과정을 상상했으며, 그의 수출 진흥과 중화학 공업화와 새마을운동은 각각 잠자던 상인 본능과 창조본능, 그리고 자조정신을 일으켜, 한국경제의 창발적 도약을 실현하였다.

이러한 정책은 이병철, 정주영, 김

우중과 같은 기업가들이 경제 발전을 이끌었던 후술하는 그의 기업주도 경제 창발 패러다임과 일치했다. 박 대통령의 기업주도 발전 관점은 복잡성 경제학에 대한 그의 이해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었다. 그의 관점에서 기업은 자본주의 경제 발전의 견인차로, 마차 경제를 자동차, 비행기 경제로 비선형적 질적 차원의 변화를 주도하는 창발의 주체였다. 박 대통령은 이를 깊이 인식하고 기업 육성을 통해 창발적 발전을 실현했다. 또한 새마

창발적으로 “잘살아보세” 국민의 욕망에 불지펴

을운동도 34,000개의 농어촌 마을을, ‘새마을지도자를 사장으로 하는 준 기업적 조직’으로 변용시켜 이들 공동체의 경제적 창발을 유도했다.

박 대통령의 이러한 창발적 통찰은 그가 주로 군사교육만을 받았다는 점, 당시 세계의 경제학 담론에서 복잡성 기반 아이디어가 전혀 부재했던 점, 그리고 주류 신고전파 성장 모델이 창발적 사고는 물론 기업의 중요한 역할을 무시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정말로 놀라운 것이다.

3) 박정희의 과제

이같이 창발적 경제발전관을 가졌던 박정희 대통령의 제일의 과제는 이제 어떻게 하면 모든 국민을 현재에 안주하지 않고 도약적 자기혁신과 변화를 생활화하여 창발하게 할 것이냐였다. 즉, 당시 정태적 비교우위론 등 시장 중심적 사고에 젖은 기존 경제학계나 지식인 사회, 그리고 사회주의적 평등주의를 동경하는 일부 정치권 등의 물이해를 이겨내고, 과거의 타성에 빠져 선형적 사고를 못벗어나는 국민이나 기업인들에게 창발적 발전의 동기를 부여하여, 국민 모두를

자동차·비행기 경제건설에 나서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이 그의 무엇보다도 큰 과제였다고 볼 수 있다.

진정한 창발적 경제 발전의 과제는 단순히 선진국의 민주주의와 시장 경제 제도를 모방하는 것을 넘어 이를 어떻게 선용하여 국민을 너도나도 부의 창출에 나서게 하여 고차원의 경제로 도약을 이뤄낼 것이냐 하는 것

“나는,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말이 결코 하나의 미신도 아니고, 어떤 종교적인 설교도 아니고 만고불변의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옛날에 우리나라 속담에 가난은 나라도 구제하지 못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나는 그 말을 바꾸어서 부지런하지 않은 사람은 나라도 도울 수가 없다고 하겠습니다. 부지런한 농민은

이다. 그런데 박정희는 부자가 되고 싶어하는 국민의 욕망에 불을 지를 줄 아는 지도자였다. 새마을주민들을 신들린 듯 일해 가난을 벗어나게 만들고, 중소·중견기업들을 죽기 아니면 살기로 수출에 매달리게 하여 대기업으로 키울 줄 알았다.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 박정희 대통령은 항상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설교하였다. 그는 바로 여기서 그 답을 얻었다.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 것만이 동기를 부여하여 모두를 스스로 돕는 자로 바꿀 수 있다. 박정희 대통령은 항상 나는 스스로 돕는 자의 편이라고 선언하였고 그래서 모든 국민을 스스로 돕는 창발하는 국민으로 바꿀 수 있었다.

박정희의 시장관:

1. 시장은 스스로 돕는 자만을 돕는 동기부여 장치이다.

박정희 대통령의 시장관(市場觀)은 새마을운동에 대한 어록을 통해 확인된다. 박 대통령은 시장은 스스로 돕는 자만을 돕는 선택자인 하느님 같다고 선언하고 정부 또한 그래야 하며 나 또한 그러하겠다고 선언했다.

정부도 도울 수 있고 이웃도 도와줄 수 있지만, 부지런하지 못하고 스스로를 돕겠다는 자조정신이 강하지 못한 농민은 아무도 도울 수가 없고, 또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자기 스스로가 할 수 있는 일도 하지 않고 모든 것을 정부가 도와 달라하는 생각은 버려야 합니다...”(권농일 치사, 1970.6.10.)

또한 박 대통령은 여기서 한 차원 더 나아가 시장의 차별적 선택은 동기부여를 통해 모두를 스스로 돕는 자로 창발하도록 유도하는 인센티브 장치라고 보았다. 5000년 동안의 가난 속에서 길들여진 “가난을 하늘 탓, 남 탓하는 반자조적 민족성”을 벗어나 진취적이고 자조적인 정신을 함양하는 것만이 민족중흥의 길이라 믿었으며 이를 위해 본인이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 시장의 선별자 역할을 자임하였다. 자조하는 국민을 우대하고 자조하지 않고 불평하는 자들을 버린다 함으로써, 국민 모두를 자조하는 국민으로 이끌었다. 박정희는 자조하지 않으면 버린다 하고, 모두를 살려내는 시장친화적인 차별화 동기부여 리더십의 전형이었다.☞

대한연론 특별기획 근현대사 실록 35 <끝>

‘거인의 마지막 길’ 국민들 눈물로 전송

“내가 귀국하는 것이 나라에 도움이 안된다면...이 간절한 마음을 참아야지...누가 정부 일을 하던지 잘 하기 바라오...” 이 말을 끝으로 “나라...나라...”를 중얼거리며 쓰러진 이승만은 끝내 다시는 일어나지 못했다. 4·19 이후 하와이로 ‘몇주간 요양’하러 떠난 2년째인 1962년 3월17일, 타의에 의해 미루고 미뤄졌던 귀국준비를 마치고 비

행기 티켓을 손에 쥐자 어린아이처럼 좋아하던 87세 이승만은 공항으로 출발직전에 달려온 김세원 총영사로부터 “귀국할 때 아니다”는 통고를 받았으니 얼마나 충격이 컸던가...그 한국행 티켓이야말로 이발비도 아끼고 반찬값도 줄여 마련한 것이었는데 허사가 되고 말았다.



36) 이승만은 살아있다

그때부터 마우날라니(Maunalani: 천국의 산) 요양원으로 옮긴 이승만은 부인 프란체스카가 꿰어주는 한국 식으로 연명하며 부부는 이런 노래로 향수를 달랬다고 한다.

날마다 날마다 김치찌개 김치국
날마다 날마다 콩나물국 콩나물
날마다 날마다 두부찌개 두부국
날마다 날마다 된장찌개 된장국
자신이 천신만고 끝에 다시 찾아 세운 조국 대한민국이 그를 버렸을 때, 평생 독립운동을 함께한 교민들은 그를 버리지 않고 온갖 정성으로 보살폈지만 이승만은 결국 눈을 감는다.

1965년 7월19일 자정께 별세한 이승만의 유해가 자신이 손수 건립한 한국기독교 교회당에 안치되었을 때 40년 친구 보스워이 달려와 통곡한다.

“내가 자네를 안다네, 자네를 알아. 자네가 얼마나 조국을 사랑하는지, 얼마나 억울한지를 안다네. 그 애국심 때문에 얼마나 고생했는지, 얼마나 비난 받았는지... 내가 잘 안다네, 잘 알아...내 소중한 친구여!”

◆당시 박정희 정부는 왜 이승만의 귀국을 막았던가.

5·16 쿠데타 정권의 2인자 김종필은 회고록에서 박정희도 이승만의 귀국을 반대하지 않았고, 도미길의 자신에게 위문금 2만달러까지 주어 병상의 이승만에게 전했다고 증언한다. 하지만 노환의 건국대통령을 귀국시키기에는 ‘때가 아니었음’을 부인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당시 ‘한일국교정상화’ 교섭에 앞장선 주역이 김종필이었던 것이다.

‘조국근대화’를 공약한 군사정부는 서독에 광부와 간호원을 파견해 달러를 벌고 서독차관을 얻었지만 어렵도 없었다. 박정희가 직접 일본에 날아가고 김종필이 ‘오하라 메모’ 합의를 얻어낸 것이 바로 이승만이 귀국하려던 무렵의 일이었다. 전국에서 일어나는

‘굴욕외교 반대’ 데모 사태에 이승만이 가세한다면 어찌 되겠는가. 계엄령으로 시위를 진압하고 한·일기본협정에 조인한 것은 이승만이 세상을 떠나기 한달 전 1965년 6월22일이다.

◆이승만의 대일정책 목표는 대마도를 포함한 실지회복과 약탈재산 반환

식민지배에 대한 완전보상이며, 여기에 소련이 강점한 북한 해방과 남북통일이다. 이때 이승만의 협상을 가로막은 것은 미국의 일본중심주의와 김일성의 6·25였다. 한국전쟁의 특수에 힘입어 전후복구와 경제재건에 성공한 일본은 일급전범 기시 노부스케가 한반도의 분단지배(divide and rule) 노선을 노골화, 재일교포의 대규모 복송을 강행함으로써 이승만은 격분한다.

다급한 박정희는 경제개발자금 획득에 올인, 겨우 무상 3억달러에 이승만의 대일정책을 무산시키고 평화선마저 내주고 말았다. 그후 김대중은 한술 더 떴다. 독도를 한·일공동관



이승만 전대통령의 장례식날인 1965년 7월27일 서울 장안을 메운 추모인파.

혁명야, 한국의 위인”으로 선언하고 있다. 추도사임을 감안하더라도 그가 구사한 용어들은 당시 ‘이승만 독재자 몰이’의 편견을 깨는 최초의 놀라운 평가였다. ‘영웅이 영웅



이승만 대통령이 1955년 11월 3군단 훈련을 참관했을때 박정희 제5사단장과 악수하는 장면, 두 영웅의 악수 사진은 이것이 유일하다.

1965년 한·일국교 정상화 앞두고 이승만 귀국 저지

리수역으로 내주었다. “독도는 지금 안녕하신가?” 이승만이 천국에서 묻는다.

◆서울 장안이 인산인해, 당시 250만 인구가 다 몰려나온 것 같았다.

1965년 7월27일 이승만 장례식, 국민들은 빌딩옥상과 가로수까지 올라가 거인의 마지막 길을 눈물로 전송한다.

이승만이 선택한 국군묘지 동작동에 묻히는 영결식, 대통령은 조사에서 말한다.

“역사를 헤치고 나타나 몸소 역사를 짓고 역사 위에 숭한 교훈을 남기고 가신 조국 근대화의 상징적 존재로서” 이승만 박사의 자주독립과 반공의 선구자적 공로를 치하한 박정희는 이승만을 “세기의 인물” “건국인,

을 알아본다”는 말처럼, 혁명야 박정희 눈에 이승만은 ‘민족이 낳은 영웅’이었다.

◆이승만이 없었다면 박정희도 없다.

여순반란사건에서 검거된 총살감인 남로당 조직책 박정희를 이승만은 세 번이나 살려주었다. “공산당도 반성하면 포용한다”는 이승만의 리더십이 주변의 반대를 물리치며 박정희를 미국 유학 보내고 별을 달아주고 사단장으로 발탁한다.

박정희는 운도 좋다. 이승만의 유산이 얼마나 풍성했던가. 그의 ‘조국근대화’ 혁명은 이미 이승만이 깔아놓은 근대화의 철길을 고속질주한다.

결국 이승만의 후계자는 박정희였다. 국가혁명의 쌍두마차! 세계 학

계가 말하는 ‘건국기 30년’동안 두 혁명가의 배턴터치가 이룬 자유민주공화국의 Nation-Building 성공, 이것이 바로 전후 신생국들 중 유일하게 한국이 산업화-민주화-선진화를 달성한 비결이다. 과연 하나님이 대한민국에 베푼 최대의 축복이다.

박정희가 그랬듯이 오늘도 우리는 이승만이 목숨 걸고 쟁취한 한·미동맹과 ‘이승만 체제’속에서 번영을 누리고 있다.



인보길 전 조선일보 편집국장 뉴데일리 대표

세계5위권의 대한민국을 세우고 만들어내는 자유의 화신 ‘국부 이승만’은 영원히 살아있는 국가수호신이다. ☞

특파원 수첩

런던 ⑧

도재승 서기관, 피랍 21개월만에 귀국

끈질긴 외교 협상의 개가...몸값 베일 속으로



박창래
전 동아일보 런던특파원
전 문화일보 편집국장
전 초록우산어린이재단 대표이사

레바논은 '모자이크'의 나라이다. 서로 다른 종족, 다른 종교, 같은 종교 안에서도 수많은 종파, 그리고 외부 세력들이 얽히고설켜 혼재하며 살고 있기 때문이다. 로마가 침입했다가 오스만 제국에 정복당하고 베드윈이 들어 오다가 프랑스의 통치를 받은 이후 지난 1943년에 독립한, 복잡한 역사를 지니고 있다. 민족이 통일될 수가 없음을 오히려 당연하다. 프랑스로부터 독립되면서 종파주의에 따른 정치제도를 마련한 것이 오늘날 분쟁의 불씨가 되었다. 각 종파가 서로 자기 몫을 보다 더 찾으려 다투고 거기에 주변 외부 세력의 이해가 개입하고 있기 때문이다.

권력의 철저한 종파별 안배는 독립 때부터 시작되었다. 정부 주요 관직은, 대통령은 기독교 마론파, 국회의장은 회교의 시아파, 수상은 이슬람 수니파로 안배되어 있다. 국방장관은 드루즈파. 국영기업, 공공단체, 우체국 직원까지 심지어 군대조직까지 철저하게 나누어 먹기 식이다.

128명의 국회도 종교별, 다시 종파별로 배분된다. 독립당시의 국민협약이 불문율로 되어 종파주의에 입각한 독특한 권력 분점구조가 지켜지고 있기 때문이다. 자기 종파의 이익에 어긋나는 상관의 지시를 따를 리가 없다. 지난 15년간 계속된 내전도 바로 이 같은 종파의 주도권 쟁탈전에 다름 아니다.

이 나라에서는 인구통계 조사가 전혀 실시되지 않고 있다. 지난 1932년 이후, 그러니까 83년간 공식적인 인구 통계가 없다. 국민들의 종교 분포를 파악할 수 있는 인구 조사는 사회적 갈등을 불러오는 요소가 되기 때문에 통계 조사를 아예 하지 않는다. 인구가 100만인지 150만인지 대답하는 사람마다 다른, 수도 베이루트에 신문이 40여개, 라디오 방송국이 10여개, TV 방송국이 3개가 있는 것도



도재승 서기관이 피랍 21개월만에 구출되어 김포공항 도착, 가족품에 안겼다.

따지고 보면 다른 종교를 배경으로 한 민족구성의 다양화를 단적으로 나타낸다. 이 나라가 발행한 관광 안내책자에도 자국(自國)을 '모자이크'의 나라로 설명하고 있다. 오죽하면 영국의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가 '살아있

이 지나고 해가 바뀌어도 종무소식. 도재승은 세상의 모든 안테나에서 사라졌다.

필자가 현지 취재를 위해 찾은 이슬람과 기독교 간의 전쟁터, '그린 라인'(녹색 선)은 치안부재, 무정부상태

진 한 장만 찢겼다'고 안내원이 아랍어로 말하자 '꼬레', '아메리카'하면서 주먹을 불끈 쥐었다. 한국은 미국 편이니 아랍의 적이라는 뜻이라는 안내원의 설명이다. 간신히 위기를 모면했지만 이날 저녁 식당에서 '우리가 지금 내전상태에 있는 것은 전적으로 미국 때문'이라는 종업원의 열변은 미국에 대한 증오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증명한다.

'교섭 타결' 베이루트 폭 극비 전문 '건강하다'는 육성 전화와 자기 지문도

그렇게 세월이 흐르던 어느 날, 1987년 9월 하순부터 긍정적인 징후가 나타났다. 석방 교섭에 입질이 시작된 것이다. 영국 성공회 테리 웨이트 특사를 비롯한 미국, 프랑스 등 인질 24명이 곧 석방될 것이라는 보도가 나오고, 아말파 지도자인 나비 베리 레바논 법무장관의 '협상 타결, 곧 석방'이란 기자회견도 이어졌다. 9월 29일에는 도재승의 육성전화가 그리스 주재 한국 대사관으로 걸려오기도

'교섭타결' 베이루트 석방 소식에 외교부 환호 '모자이크 나라' 레바논 권력의 종파 분쟁 극심

는 종교 박물관'이라고 표현했을까. '모자이크'의 나라 레바논, 83년 동안 인구조사 안해

종파별 권력안배가 분쟁의 불씨 그들의 내전은 계속되어도 우리의 관심사는 도재승의 생사 여부와 석방 교섭. 그러나 피랍 1년이 지나가건만 행방은 묘연하고 서로 납치를 주장하던 조직에서도 그 뒤로는 구체적인 요구 조건을 제시하는 일이 없다. 사진을 보여주며 1,000만달러를 주지 않으면 '없애버리겠다'던 녹색여단(Green Brigades)도, 회교 강경파 헤즈볼라도, 침묵 모드로 들어갔다. 적어도 표면적으로, 대외적으로는 그랬다. 피랍사건은 그래서 장기 미궁으로 빠져들었다. 도재승 부인을 비롯한 가족과 이곳 각종 종교 지도자들이 레바논 방송을 통해 석방을 호소했으나 반응은 전무. 그렇게 날이 가고 달

의 총합이다. 지난 1975년부터 도재승 납치 때까지 무려 11년간 지속된 전쟁의 상처는 어디를 가나 파괴와 폐허, 가난과 실업, 그리고 실의밖에 찾을 수 없다. 밤에는 총격전이 벌어져도 비교적 소강상태를 보이는 낮이지만, 숨이 막히는 곳, 등골이 오싹한 곳이다.

현장 르포하기 위해 가려하자 위험천만이라는 이곳 외국 기자들의 만류를 뿌리친 것을 후회한 것이 몇 번인지 모른다. 격전지에 들어가기 위해 병커를 한두 개 지나면서 느끼는 오싹한 육감에 바로 되돌아 나오려하니 흙더미가 다 드러난 아파트 속에 회교 민병대가 쏘아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또 폐허가 된 모습을 카메라에 담기 위해 잠깐 차 밖으로 나가자 벌써 어디에선가 '누구냐'는 고함소리가 귓전을 때린다. '한국인 기자인데 사

했다. 그는 이 전화에서 "건강하다. 빨리 석방교섭이 마무리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자신의 지문과 구원을 요청하는 자필 영문편지도 들어 왔다. 그의 생존 사실이 피랍 후 처음으로 확인된 것이다.

드디어 결정적 순간, 1987년 10월 31일 새벽 6시, 밤을 새우던 외무부 중근동과(中近東課)직원들의 표정이 갑자기 밝아졌다. 도재승의 석방교섭이 타결되었다는 베이루트폭 극비 전문. 사무실 안은 순간 술렁거렸다. 그 뒤 극비 수송 작전 끝에 그는 제네바, 프랑크푸르트를 거쳐 1987년 11월 2일 건강한 모습으로 김포공항에 안착, 자유의 품에 안겼다. 실로 납치 1년 9개월, 21개월 만의 일. 비밀리에, 그러나 치열하게 벌인 우리 외교의 개가였다.☞

이재명 정부 대북정책 ‘안보리스크’ 부추긴다

대북 유화책에 北 김여정 ‘허망한 개꿈’ 조롱



김동철
본회 회우
이순신인성리더십 포럼 대표

‘안보는 죽고 사는 문제다.’ 이 절체 절명의 화두가 내우외환의 도전을 받고 있다. 작금의 대한민국의 안보 현실은 위험천만한 누란(累卵)의 상황, 풍전등화의 위기로 밖에 설명할 길이 없다. 대한민국호(號)를 이끄는 군 최고통수권자인 대통령을 비롯한 고위 인사들 가운데 ‘북한 주적(主敵)’ 논란도 분분하다. 민노총 위원장 출신인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청문회 때 “북한은 주적이 아니다”라고 한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의 의견에 동의한다”고 답변했다.

자칭 ‘대통령의 멘토’라는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청문회에서 북한의 미사일 위협 대응에 대한 야당위원의 “핵무장·미사일 위협도 단순 위협으로 보는가”라는 질의에 대해, 그는 “쓸 필요가 없는 상황을 만드는 것이 정부의 임무”이며 “충분히 그렇게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무슨 안이하고도 해괴망측한 망발인가. 지난 9월 언론 간담회에서도 망언을 쏟아냈다. “사실상의 두 국가, 이미 두 국가, 국제법적 두 국가”라면서 “적계는 50~60% 국민이 북한을 국가라고 답한다”라고 말했다. 이 발언은 헌법 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라는 조항에 정면 위배되는 것이므로 반헌법적, 반통일적 발상이다.

정 장관의 ‘평화적 두 국가론’은 1972년 동·서독기본조약을 차용한 ‘남북기본협정’을 체결하겠다고 서독의 대(對)동독정책이 두 국가론인 것처럼 말하는데 그건 심각한 곡해다. 서독은 기본법(헌법)에 1민족1국가 원칙을 명시했다. 남북이 1991년 타결한 남북기본합의서는 “나라와 나라 사이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한 관계”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정 장관은 “평화적 두 국가론이 특수 관계 속 두 국가론”이라는 궤변을 늘어놓고 있는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북관도 의심스럽다. 이 대통령은 유엔 총회 연설에서 김정은이 주장하는 남북 ‘두 국

가론’을 뒷받침했다. 유엔 연설에서 ‘E·N·D(교류·관계정상화·비핵화)’라는 단계적 북한 핵폐기 방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이는 비핵화에 대한 구체적 대안도 없이 전 세계에 사실상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게 외교가의 중론이다. 비핵화를 후순위로 둔 이런 발언에 대해 국민들의 불안을 잠재울 수 있는지는 미지수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북관은 이미 광복절 축사에서 적나라하게 밝혀졌다. “남과 북은 원수가 아니다.” 이런 말을 하면서 9·19 군사합의를 단계적으로 복원하겠다고 했다. 그는 이미 취임 직후부터 전단 살포와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 조치 등을 지시했다. 이런 유화책에 대해 북한의 김여정은 ‘허망한 개꿈’이라며 조롱했다.

9·19 남북 군사합의는 2018년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 군사 충돌을 완화하자는 군사합의 조치다. ▲군사분계선(MDL) 인근 상공의 비행금지 구역 설정 ▲해상 완충 수역 설정 ▲적대행위 금지 및 비무장지대(DMZ) 내 무력충돌

북한은 지난 10월 10일 노동당 창건 80주년 열병식에서 새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화성 20형’을 등장시켜 미국 본토 타격 능력을 과시하며 핵보유국 지위를 기정사실화했다.

북한은 이날 중·러 2인자들 앞에서 한반도·괌·워싱턴을 한번에 때릴 ‘화성 20형’ ICBM 미사일을 비롯해 ‘화성 11-마’ SRBM(단거리탄도미사일), 화성-16호 IRBM(극초음속 중거리탄도미사일) 등 3종 세트를 자랑했다. 보통 이런 위협 상황이면 이른 아침부터 국가안전보장회의(NSC)가 개최되고 외교·안보 부처들이 분주히 움직이는 게 상례인데 이재명 정부는 놀라울 정도로 조용했다. 대통령실은 “당 창건 80주년 행사는 기본적으로 북 내부 행사”라는 입장을 냈다.

정치권에서는 정동영 장관과 이종석 국정원장 등을 남북관계 중심으로 외교·안보 노선을 설정하고자 하는 ‘자주파’로, 위성락 안보실장, 조현 외교부 장관 등은 외교관 출신으로 한·미 동맹을 강조하는 ‘동맹파’로 꼽는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북한 접경지에서 군사훈련을 중단해야 한다

는 ‘환수’ 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북한 김정은 정권의 나팔수가 되어서 북한과 중국의 전통적 ‘주한미군 철수’ 요구에 부화뇌동하는 이적행위를 자행하는 것이다.”

현재 한국군에 대한 작전통제권 가운데 전시(戰時)가 아닌 평시(平時)의 작전통제권은 김영삼 정권 때인 1994년 한국에 의해 이미 환수되었다. 신각수 전 외교부 1차관 또한 “안보에는 연습이 없다”며 우려를 표하고 있다.

“우리가 우리 군대의 작전통제권을 갖겠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지금 변화한 안보 환경 속에서 우리의 능력, 특히 정찰·감시 능력은 한참 모자란다. 이런 상태에서 감정적·정치적·이념적 이유로 전작권 전환을 하면 대북 억지와 방어 능력이 떨어진다. 한번 국방력이 약화되면 그것으로 그냥 끝이다.”

최근에 보도된 세 가지 뉴스가 우리의 안보 실상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다.

첫째, 데이비드 주한미군 부사령관은 특검이 오산 제1중앙방공통제소

비핵화 대안없이 北 핵보유국 인정할 꼴

방지장치 등이 핵심인데 이것들은 비례원칙에 위반되어 우리에게 훨씬 불리한 조건들이다. 우리의 최후단을 지키는 창끝, 백령도의 해병 6여단은 세계 최강 명품 무기인 K9자주포 실사격 훈련을 하지 못해, 포를 배에 싣고 서해로 나와 육지의 포사격장에 가서 훈련을 마치고 다시 돌아가야 했다. 또한 공중정찰 제한 조항은 한·미 연합군의 강력한 감시·정찰 자산을 제한하는 것으로 강제로 두 눈을 가린 굴욕적 조치였다.

국방부는 최근 “남북 간 군사적 긴장 완화를 위한 조치의 일환”이라며 “강원특별자치도 철원 일대 비무장지대(DMZ) 내부 백마고지에서 2022년 11월 이후 중단된 6·25전쟁 전사자 유해 발굴을 재개한다”고 밝혔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공약했던 9·19 남북 군사합의 복원의 포석이라고 할 수 있다. 유해 발굴 과정에서 우리 측이 출입로를 마련하고 지뢰를 제거하면 군의 대북 대비 태세를 약화시킨다는 지적이 나온다.

는 정동영 장관의 주장에 대해 “군인이라면 기본적으로 훈련을 해야한다”면서 “최근 실시된 해병대 서북 도서 일대 해상 사격훈련을 자신이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처럼 정부 외교안보 담당자들이 북핵 인정 여부와 남북한 두 국가론, 엔드(END) 이니셔티브 등을 두고 엇박자 메시지를 내면서, 우리 정부의 대외 메시지가 혼동되거나 왜곡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런 봉숭아학당 같은 난맥상은 국정철학의 합치가 없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은 또 제77회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굳건한 한·미동맹 기반 위에서 전시작전통제권을 회복하여 대한민국이 한·미연합방위태세를 주도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동복 신아시아 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다음과 같은 견해를 밝혔다.

“지금 이재명 정권에서 통일부 등과 정치권의 인사들이 한국군의 전시작전통제권, 심지어는 작전지휘권이라는 어휘까지 사용하면서 ‘전환’ 또

(MCRC)를 압수수색한 데 대해 우려를 표명한 항의 서한을 외교부에 보냈다. MCRC는 한·미가 함께 쓰는 오산기지 내 한국항공우주작전본부(KAOC) 건물에 위치해 있다.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위반이 아니냐는 항의였다.

둘째, 병사들의 월급 올려주고 핸드폰 주니 도박·코인 베팅에 올인해 도박 범죄가 1년 새 1.5배 급증했다. 올해 병장의 월급은 내일준비지원금(55만원) 포함, 205만원이다. 이들을 먹잇감으로 삼은 사설 대부업체는 ‘총성론(loan)’ ‘병장론’ 같은 현역병 대상 연이율 20% 안팎 고리대금 상품을 쏟아내고 있다.

셋째, “육사생도 32%가 군인의 꿈을 버렸다. 박봉에 오지를 돌아야 하기 때문”이란 다. 육사 그만두고 인(In)서울 대학을 택하는 생도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씁쓸한 보도였다. ‘병력 절벽’ 위기의 한국군에 엘리트 간부 충원도 ‘절벽’의 시대가 도래했다. 대한민국 안보에 큰 구멍이 뚫렸다.☞

민주당, 총성없는 6시간계엄 '내란몰이 포장'

말 많고 탈 많았던 을사년이 저문다. 올해는 매년 이맘때면 단골로 등장하는 '다사다난(多事多難)'이란 표현만으로는 부족한 그야말로 격동의 한 해였다.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가 대통령 탄핵으로 이어졌고, 뒤이은 조기 대선에서 정권이 교체됐다.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은 총성 한 방 없고 사상자 한 명 없는 6시간짜리 계엄을 내란으로 몰

아붙이는 한편으로 사법부를 전방위로 압박하며 일당 독재 군히기에 여념이 없어 국정은 파탄지경이다. 반면 야당으로 전략한 국민의힘은 "반시장·반인권·반법치를 일삼는 괴물 정권"이라고 맞받아치며 생존의 몸부림을 치고 있으나 당의 정체성과 투쟁 노선을 둘러싼 엇박자에 발목이 잡힌 형국이다.



온갖 무리수가 동원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재판은 대한민국의 탄핵 제도와 사법 체계에 도사린 근본적 취약점을 여지없이 드러냈다. 무엇보다 정치 보복 수단으로 변질된 국회의 탄핵소추권 남용이 문제다. 국회를 장악한 민주당은 탄핵소추권을 정치 무기로 악용하며 허구한 날 탄핵 타령이더니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몰아 대통령까지 탄핵 소추했다. 탄핵소추안이 표결 불성립으로 부결되자 임시회기에 소추안을 그대로 다시 상정하는 일사부재리 위반도 불사했다. 임시회기로 포장한 민주당의 변칙에 눈감은 헌법재판소는 민주주의 최후 보루의 본분을 망각하고 좌파의 정치 공세에 동조했다는 비난을 면키 어렵다.

하지만 이 정도는 이후 윤 대통령 탄핵 재판 과정에서 현재가 저지른 만행들에 비하면 약과다. 현재는 재판 초기에 내란 혐의 배제를 민주당에 권유하는 꾀짜미를 연출했다. 탄핵 소추의 빌미가 된 내란 혐의가 빠진 만큼 소추안 재결의를 국회에 요구해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해도 마이동풍이었던 배경이다. 그리고도 급박한 재판 진행과 증거 능력 없는 진술조서와 오염된 증언 채택 등으로 법적 정당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포기한 채 올 4월 4일 헌법재판관 8인의 만장일치로 탄핵안을 인용했다. 이로써 윤 대통령은 박근혜 대통령에 이어 헌정 사상 두 번째 현역 대통령 탄핵이란 불명예를 뒤집어 썼다.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게 있다. 검찰과 경찰은 계엄 선포 사흘 뒤인 12월 6일 전담수사팀을 각각 편성하고 국방장관, 경찰청장 등을 내란 혐의로 긴급 체포했다.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는 직권남용죄를 확대 적용하는 편법으로 12월 8일 검경에 수사 이첩을 요구했고, '영장 소핑' 등의 비정상을 무릅쓰며 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구속을 끝내 감행했다. 탈법적이거나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로 대통령 직위가 정지된 것은 12월 14일이다. 그런데도 검경과 공수처가 그 전에 멋대로 수사본부를 꾸리고 현직 대통령을 체포·수사한 반역



민주당의 입법독재가 벌어지고 있는 국회본회의장.

에 몰두하는 다수의 폭거가 국가 안보와 헌정 질서를 크게 위협하는 양상이다. 통합과 국민 주권은 헛구호일 뿐이고 '우리끼리'만 횡행한다.

거야 시절에도 그랬지만 민주당의 일방주의 폭주는 집권 후 한층 더 노골적이고 패권적이다. 국회선진화법을 무시하고 노란봉투법, 상법, 방송 3법 등 술한 악법을 강행 처리했다. 윤 정권 망신주기용 특검을 3개나 굴리며 성과도 없이 애먼 공무원을 희생시킨 것으로도 모자랐는지 상설 특검도 띄웠다. 이 정권에서 협치는 사치다. 민생과 안보는 내팽개치고 정적 궤멸, 여론 조작, 무책임한 돈풀기, 규제 강화 등 이념과 진영 논리에 갇힌 '무능 정권'이다. 돈줄 끄꽂뚱어 실 수요자만 때려잡고 잡으라는 집값은 못 잡은 채 부자들 좋은 일 시켜 준 10·15 부동산 대책이 좋은 예다. 부동산으로 폭망한 노무현·문재인 정권의 어두운 그림자가 벌써 스멀거린다. '집 없고 가난해야 내 편'이란 좌파의 고약한 인식이 화근이다.

6·3대선서 이재명 대통령 49.4% 당선 '한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 실감케

죄는 추후 나라가 바로 서면 반드시 법의 철폐를 내려야 한다.

6·3 조기 대선에서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49.42%의 득표율로 41.15%에 그친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를 누르고 제21대 대통령에 당선됐으나 이번에도 비상계엄 선포 이유의 하나였던 부정선거 의혹은 불식되지 않았다. 이 밖에 당내 경선 도중 노정된 국민의힘의 불쌍사나운 자중지란과 한때 국민의힘 당대표를 지낸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8.34%)의 이탈에 따른 우파 진영의 분열에 계엄의 불가피성, 이른바 '계몽령'에 대한 대국민 홍보 부족 등이 겹친 것도 김 후보 패배 요인으로 분석됐다.

이 대통령은 6월 4일 취임사에서 'K-민주주의'를 들먹이며 "분열의 정치를 끝낸 대통령이 되겠다"고 선포했다. 또 "모든 국민을 아우르고 섬기는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 "국민 통합을 동력으로 삼아 위기를 극복하겠다"며 '국민 주권 정부'란 문패도 내걸었다. 하지만 그의 취임사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만들겠다"던 문재인 전 대통령 못지않은 허망한 빈말 잔치로 판명나기까지는 반년도 채 안 걸렸다. 내전에 버금가는 나라의 분열상이 정권 출범 후 완화되긴커녕 외려 부쩍 심화됐다. 정권 수호 논리로 내세운 '내란 프레임'으로 자기들 입맛대로 규정한 '적폐 청산'

야당의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몽개고 지난 9월 밀어붙인 정부조직법 개편도 문제투성이다. 최대 관심사는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10월 발효되는 검찰청 폐지다. 검찰의 수사 기소 기능은 각각 행정안전부와 법무부 산하에 신설되는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이 맡는다. 그러나 '수사-기소 분리'라는 검찰개혁 명분이 무색하게도 두 기능 모두 있는 공수처와 특검은 손대지 않았다. '5개 혐의로 기소된 이 대통령의 치졸한 복수극'이 의심되는 까닭이다. 방송통신위원회를 없애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한 것도 황당하다. 윤 정권 때 임명된 이진숙 방통위원장을 쫓아

6·3 지방선거 민주주의 死活 시험대

격랑 병오년

2025년 예진

대법관 증원 등 '사법부 흔들기' 난제 산적

<12면에 이어서>

내려고 법까지 만들어 멀쩡한 부처를 없앤 '위인폐관(爲人廢官)'이다. 기획재정부의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 분리나 '탈원전 시즌 2'가 우려되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도 이전 좌파 정부들의 시행착오로 드러난 실패작들의 되풀이란 점에서 매우 마뜩잖다.

외교도 심히 우려되는 분야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주최 만찬에 불참하고 G20 정상회의에서 왕따되는 장면 등은 기껏 중국 가서 혼밥이나 먹고 국제회의에서 단체사진 찍을 때마다 멀뚱대던 문 전 대통령한테 이미 경험한 터라 새삼 놀랄 것도 없지만, 국민을 속이는 기만행위는 탄핵감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우격다짐에 도리없이 끌려가는 건 그렇다 쳐도 이 대통령의 8월 말 방미 직후 "한·미 관세협상 결과가 너무 좋아 공동 성명이나 합의문이 필요 없었다"고 농쳤다가 말짱 거짓말로 드러난 것은 용서가 안 된다. 경주 아태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10월 말 열린 한·미 정상회의에서 가까스로 타결됐으나 정부가 발표한 팩트 시트(요약 문서)는 뒤늦게 공개된 미국의 그것과 차이가 꽤 있어 또 다른 '속임수'의 여진을 남겼다.

이 정권의 첫 국정감사도 엉망진창이었다. 그중에서도 사법부 압박이 가관이다. 추미애 국회 법사위원장은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을 사실상 감금한 채 청문회를 강행했고, 민주당 의원들은 현장 검증 이랍시고 대법원을 휘젓고 다니며 법대에 오르는 전대미문의 추태를 부렸다. 앞서 이 대통령이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국민이 직접 뽑은 선출권력, 즉 입법부와 행정부의 서열이 임명 권력인 사법부보다 위라는 '선출 권력 우위론'을 폈다가 3권 분립 원칙을 저버린 무지하고 천박한 발상으로 여론의 뭇매를 맞았어도 막무가내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우리 국민이 대통령도 2명씩이나 탄핵했는데 대법원장이 뭐라고"라며 한술 더 떴다. 이 정권의 돈과 인사를 주무르



용산시대는 끝났다. 2026년은 '어게인 청와대'로 새 정치판이 펼쳐진다.

청와대 재입성...정치 새판짜기 주목

는 '숨은 실세'인데도 고향, 학력, 가족관계 같은 신상 정보가 온통 감감이인 김현지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을 '존엄' 모시듯 비호하며 국감 출석을 한사코 막는 등 야당의 증인 채택 요구를 모조리 퇴짜 놓은 것도 여태 못 보던 국감 풍경이다.

연말 정국의 가장 큰 논란거리는 정권 차원의 내란물이다. 윤 대통령 탄핵 재판에서 내란 혐의가 배제됨에 따라 내란 혐의 재판은 현재 별도로 진행 중이다. 유죄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죄로 보는 '무죄 추정 원칙'에 따르면 적어도 내란 혐의에 관한 한 윤 대통령은 아직까지 무죄다. 민주당은 그러나 비상계엄 직후부터 내란으로 미리 못 박고 국민 의힘과 그 지지자들을 '내란 잔당'이라고 댕아댕다. 정 대표는 "내란 잔당인 국민의힘을 해산시켜야 한다"고 공공연히 으름장을 놓는 실정이다. 가공스러운 건 이 정권이 '내란 정국'을 내년 6·3 지방선거까지, 아니 어쩌면 그 뒤로도 계속 우려먹을 속셈이란 점이다.

정부는 지난달 49개 중앙행정기관에 661명 규모의 '헌법 존중 정부 혁신 태스크포스(내란 TF)'를 설치했다.

내년 1월 31일까지 활동하는 TF는 비상계엄을 전후한 10개월 동안 계엄 관련 모의, 실행, 정당화, 은폐에 불법 가담한 공직자들을 가려내 인사에 반영한다. 망발도 유분수지 75만 공무원을 대상으로 상호 익명 제보라니...가족끼리도 서로 고발하는 북한의 '5호 담당제'를 연상시키는 인권유린이다. 인사 조치 운운하며 '휴대전화 자발적 제출'을 강요하는 건 위험 소지가 큰 사생활 파괴행위다. 한마디로 '미운 놈 찍어내기'와 '정파 쫓아내기'를 위해 공무원사회를 뒤흔들겠다는 무시무시한 공개 선언이다.

이 모든 부조리가 이 대통령 형사처리를 막고 사법부 개편과 지방선거 승리로 일당 독재를 완성하려는 야욕의 일환으로 읽힌다. 바람이 불기도 전에 미리 눕는다고 사법부 내 좌파와 검쟁이들은 대법원 파기환송심을 포함한 이 대통령 관련 재판 5개를 전부 무기 연기했다. 대법관 대폭 증원, 내란재판부 설치, 4심제 도입, 조 대법원장 퇴진 압박 등 사법부 흔들기도 점입가경이다. 지난달 검찰의 이례적인 대장동 비리 재판 항소 포기도 같은 맥락이다. 재판부가 무려 400차례 가까이 성남시 수뇌부를 지

칭하며 당시 시장이던 이 대통령의 책임을 강력히 시사했는데도 뒷선의 지시에 따른 항소 포기 7400억원이란 거액을 대장동 일당에게 고스란히 안겨주게 된 것은 '그 돈 먹고 입다물라'는 암묵적 신호다. 검사장 20명 중 18명이 반발하는 사상 최대의 검란에도 대통령과 여당은 '나 몰라라'다.

내년의 중요한 정치 일정은 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원을 뽑는 지방선거다. 여당은 가장 중요한 서울시부터 겨냥하며 선거 분위기 조기 과열을 부추기는 모양새다. 총리가 나서서 문화재인 종묘를 보호한다며 서울시의 세운상가 개발 계획에 시비를 걸었으나 고층건물로 둘러싸인 덕수궁이나 일본 왕궁 등을 보건대 설득력이 떨어진다. 어쨌든 지방선거는 이 정권의 광포한 억지 내란물질을 끝장낼 절호의 기회다.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사활이 걸렸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묵은해 보내고 새해를 맞는 송구영신(送舊迎新)의 시기다. 2026년 병오년(丙午年)이 희망을 가득 싣고 달려 오길 간절히 기대한다. ☞

이도선(본지 주필)

동행·매력
특별시 서울

SEUL
M! SOUL

맞춤형

운동



처방

관리

서울체력 9988

체력인증부터 건강관리까지
운동하는 서울 시민과 함께합니다

서울체력 9988



체력인증센터

체력인증 (국민체력100) | 맞춤형 운동처방
손목닥터9988에서 예약 | 연 1만 포인트 지급



◀ 12월 오픈 예정 ▶ 이용방법 문의: 120 다산콜 | 손목닥터9988 상담센터(1811-9988)

‘전차군단’ 독일, 19회 연속 월드컵 본선 行

스포츠 코너

‘23회 개근’ 브라질...한국은 11연속 진출

‘전차군단’ 독일이 19회 연속 월드컵 본선 진출에 성공했다.독일은 지난달 18일 독일 라이프치히의 레드불 아레나에서 열린 슬로바키아와의 2026 북중미 월드컵 유럽 예선 조별리그 A조 최종 6차전에서 6대0 대승을 거뒀다. 독일은 2골을 넣은 레로이 자네(갈라타사라이)를 포함해 5명의 선수가 6골을 합작했다. 독일은 조별리그 1차전에서 슬로바키아에 0대2로 패했지만 이후 5연승을 달리면서 승점 15(5승 1패)를 쌓아 슬로바키아(승점 12·4승 2패)를 제치고 조 1위로 월드컵 본선 티켓을 거머쥐었다. 북중미 월드컵 유럽 예선은 54개국이 12개 조로 나뉘어 경쟁한 뒤 각 조 1위가 본선에 직행한다. 울리안 나겔스만 독일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은 “모든 선수가 열심히 뛰었

브라질	23
독일	19
아르헨티나	14
이탈리아	14
스페인	12
한국	11

이탈리아는 2018년, 2022년 월드컵 본선 진출 실패.

고, 정말 훌륭한 경기를 펼쳤다. 우리 팀이 자랑스럽다”고 말했다.

월드컵 통산 4회 우승(1954, 1974, 1990, 2014년)을 기록 중인 독일은 19회 연속이자 통산 21번째 월드컵 본선 무대를 밟게 됐다. 월드컵 본선 연속 진출 최다 기록은 역대 최다(5회) 우승국인 ‘삼바 군단’ 브라질이 보유하고 있다. 브라질은 제1회 대회인 1930년 우루과이 월드컵부터 2026년



독일 축구 국가대표팀 선수들이 지난달 18일 열린 2026 북중미 월드컵 유럽 예선 A조 최종 6차전에서 슬로바키아를 6대0으로 꺾은 뒤 팔을 들어 올리며 기뻐하고 있다. 독일은 이날 승리로 19회 연속 월드컵 본선행을 확정지었다. (라이프치히=AP 뉴시스)

북중미 월드컵까지 본선 출전권을 모두 획득한 유일한 ‘개근’ 국가다. 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올해 6월 11회 연속 월드컵 본선행을 확정지은 한국이 이 부문 1위를 달리고 있다. ‘오렌지군단’ 네덜란드는 이날 북중미 월드컵 유럽

예선 조별리그 G조 최종전에서 리투아니아에 4대0 대승을 거두고 조 1위를 확정했다. 네덜란드는 통산 12번째 월드컵 본선 진출을 이뤄냈다.☞

이중세(본회 부회장·전 동아일보 체육부장)



‘배드민턴 여제’ 안세영 대한민국 체육상

안세영(23·사진·삼성생명)이 지난달 21일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서울에서 열린 ‘2025년 체육발전유공포상 및 제63회 대한민국체육상 선수식’에서 대한민국체육상 경기상 부문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1963년 제정된 대한민국체육상은 체육 발전 및 진흥에 공헌한 선수와 지도자 등 체육인에게 주는 상이다. 배드민턴 선수가 대한민국체육상 경

기상을 받은 건 1991년 박주봉(61), 2003년 김동문(50)-나경민(49) 이후 안세영이 세 번째다. 다만 안세영은 세계배드민턴연맹(BWF) 호주 오픈에 참가하느라 시상식에는 참석하지 못했다. 지난해 파리 올림픽에서 28년 만에 배드민턴 여자 단식 금메달을 딴 안세영은 올해 출전한 14개 국제대회에서 10번이나 정상에 오르며 절정의 기량을 발휘하

고 있다. 2023년 8월 처음 여자 단식 세계 랭킹 1위에 오른 안세영은 최근까지 세계 정상을 지키고 있다. 이날 대한민국체육상 지도자상은 안세영과 2008년 베이징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이용대(37)를 발굴한 최용호 지도자(69)가 수상했다. 이날 함께 수여된 최고 등급 체육훈장 청룡장은 박채순 전 양궁 국가대표팀 감독(60) 등 12명이 받았다.☞

‘라데시마 전복’ 4년만에 10회 우승

2025년 프로축구 K리그 1 대관식

‘라데시마(La Decima·스페인어로 10회 우승) 전복’. 4년 만에 왕좌를 되찾은 전복 현대가 화려한 대관식을 펼쳤다. 프로축구 K리그1 전복은 지난달 8일 전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하나은행 K리그1 2025 36라운드 대전 하나시티즌과의 안방 경기에서 명가 부활을 자축하는 성대한 잔치를 치렀다.

지난 10월 18일의 33라운드에서 올 시즌 리그 우승을 확정지은 전복은 이날 안방에서 팬들과 함께 우승 세리머니를 펼쳤다. 2021년 이후 4년 만이자 통산 10번째 리그 트로피다. 특히 지난해 10위로 추락하며 승강 플레이 오프(PO) 끝에 살아남았기에 반전 드라마의 감동은 더 컸다. 전복은 키오프 전 그라운드 중앙에 우승을 의미

하는 커다란 별 조형물을 설치해 분위기를 달궜다. 팬들은 카니발을 펼치며 선수단 버스를 맞이했다. 또 K리그 트로피 모양과 ‘왕의 귀환’이라고 적힌 카드섹션으로 명가 재건에 성공한 선수단을 반겼다. 전복 선수들도 흥겨운 골 잔치로 화답했다. 후반 11분 선제골을 넣은 송민규는 서포터석 앞에서 선수들과 셀카를 찍으며 득점을 자축했다. 후반 추가시간 썬기골을 넣은 이승우는 코너 플래그 깃대에 유니폼 상의를 걸어 올리며 3대1 승리에 마침표를 찍었다. 경기 후 진행된 시상식에서도 선수들의 개성은 빛났다. 이승우는 선글라스를 착용한 채 삼패인을 뿌리고 마시며 탁월한 쇼맨십을 보였다. 수문장 송범근은 머리카락 색을 전복의 상징인 녹색으로 염색하고



전복 선수들이 지난달 8일 전주월드컵경기장에서 2025 프로축구 K리그 1 라데시마(10번째 우승) 달성을 자축하고 있다. (연합뉴스제공)

등장했다. 전복은 팀의 현재와 미래가 함께하는 의미의 이벤트를 펼쳤다. 전복 유소년 선수들이 9개의 리그 트로피를 그라운드 안으로 가져왔고 주장 박진섭은 올 시즌 우승 트로피를 하늘 높이 들어 올리며 10번째 리그 우승을 선언했다. K리그에서 유일하게 10

회 우승을 달성한 전복만 할 수 있는 세리머니였다. 전복은 11번째 트로피를 겨냥한다. 거스 포엣 감독은 “내년에도 우승을 목표로 나아갈 것”이라며 “지난해와 다른 상황이기에 다른 방법으로 도전하겠다”고 2연패 도전을 외쳤다.☞

삼성家 장손 이지호-박정희 대통령 손자 박세현 '한국판 노블레스 오블리주' 앞장섰다



전의식
본회 편집위원 · 전 서울신문 부국장

올해 들어 유럽은 물론 아시아 지역의 유튜브 화면에서 가장 인기를 얻고 있는 인물은 갓 20세를 넘긴 스페인인 레오노르 공주라고 한다. 그는 자국인 스페인에서도 부왕인 펠리페 6세를 뛰어넘는 인기와 국민의 신뢰를 받는 따뜻한 미소로 엄청난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화면에 등장하는 공주는 아직도 꽃봉오리 같은 어린 모습이지만 또래의 보통 청년들과는 달리 어깨에 짊어진 책임감은 그 무엇보다 무겁게 보인다. 그러나 왕실의 화려한 행사보다도 그녀가 군복을 입고 나오는 장면에서 스페인 국민은 미래의 여왕에 대해 열광적인 환호로 화답하고 있다. 공주의 화사한 패션을 따르는 지지층이 끊임없이 늘어나면서 '레오노르 마니아'라는 신조어가 생길 정도로 전 유럽의 관심을 받고 있고, 자국어인 스페인어 외에 영어, 프랑스어, 이탈리아어에 중국어까지 능통한 '준비된 지도자'로 육성 되어온 인물이다.

특히 건장한 장정들도 견디기 힘든 지상군 훈련과 거친 파도와 폭풍에 마주치는 해군 함정 위에서, 항공복차림으로 전투기 안에서 그녀는 왕위 계승자가 아닌 국가의 안위를 지키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 모범적인 자세를 보여주고 있다.

언제나 특권을 누릴 수 있는 왕가의 여성인데도 스스로 그 특혜를 내려놓고, 가장 낮고 힘든 자리에 들어가 국가의 존엄성을 방호한다는 자세는 사회 고위층이 지켜야 할 노블레스 오블리주 정신을 직접 실천하는 것이어서 더욱 가치가 있어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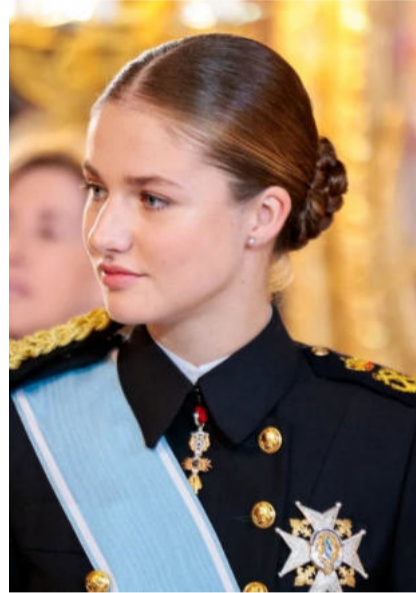
레오노르 공주가 육·해·공군사관학교를 한해씩 거치는 3년의 군사훈련을 선택한 이유는 단순히 경력을 쌓기 위해 보여주는 걸치레가 아니라고 한다. 스페인 법률은 국왕에게 군 통수권을 부여하므로 차세대 왕은 반드시 군사 경험을 갖추어야 한다는 조건 때문이다.

즉 미래의 군사령관은 국가의 힘이 어디에서 비롯되는 것인지를 배워



이지호 씨.

야 하며, 국민의 신뢰가 어떤 희생 위에 세워지는가를 이해하고 터득해야 한다. 그래서 미래의 여왕이 군복을 입었을 때 스페인 국민이 보이는 지



레오노르 공주.

많이 보았기 때문이다.

그래서일까? 갓 성인이 된 레오노르 공주의 진지한 표정과 군복의 무게는 우리에게 새로운 질문을 던진다.

서 입대 뉴스를 접한 국민 마음속에 묵직한 울림을 남겼다.

또 한 달 후 전해진 박정희 전 대통령의 장손이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가장 아낀다는 장조카 세현(20)씨의 입대도 자랑스러운 발걸음이다. 예비역 육군 대위 박지만 EG 회장과 서향희 변호사의 4남 중 첫째인 세현씨는 미국 유학 중에 귀국해 자원입대 절차를 밟았는데 일반 병과가 아닌 해병대에서 가장 혹독한 훈련을 받는 수색대를 지원해 더욱 화제가 되었다.

박씨가 속한 해병 1,323기는 6주간의 기초 훈련을 받고 자대에 배치되지만, 수색대원으로 선발되면 11주 과정의 강도 높은 추가 교육을 받게 된다. 함께 입대한 551명 중 고작 6~8명만이 수색대원으로 선발될 정도라서 '해병 중의 해병'으로 불린다는 이들의 임무는 상륙작전 시 적지 선봉에서 특수정찰과 대테러 등 특수 작전을 수행하게 된다. "굳이 그 길을 택

스페인 레오노르 공주, 해군 전투기 조종사 활약 이지호-해군 통역 장교, 박세현-해병대 수색대

지는 단순한 왕실 존중이 아니라 국민을 보호하는 책임을 선택한 지도자에게 보내는 진정한 존경이라고 말한다.

2023년 8월 사라고사 육군사관학교에 입교해 1년 동안 지상군 기초 훈련을 마친 공주는 육군 소위 계급을 받았고, 2024년 8월에는 마린 해군사관학교에 입교해 6개월 동안 훈련순시선을 타고 대서양을 횡단하며 10개국을 순방하는 해군 경험도 거쳤다. 그리고 지난 9월부터는 공군·우주군사관학교에서 항공 훈련을 받고 있는데 내년 가을에는 중위 계급으로 3년간의 군복무를 마치고 왕위 계승 1위의 신분으로 되돌아온다.

이런 모습을 바라보며 한국 사회가 느끼는 감정은 부러움만이 아니다. 오랫동안 우리 사회는 일부 지도층의 책임성, 공적 의무 외면은 물론 그들의 일탈 행위에 대해 아쉬움을 감출 수 없었다. 사회와 정치계 지도층이 지나치게 가벼운 발걸음으로 권력의 사다리를 오르내리는 모습을 너무

“이제는 선진국으로 불리는 우리 사회에서도 책임감 있는 지도층의 모습이 조금씩 자리 잡을 수 있을까?”하는 안타까운 기대였는데 올해 하반기 들어 그 징후가 하나둘 엿보이기 시작했다.

지난 9월 15일 국내 최고의 재벌 삼성가의 장남 이지호씨가 해군 사관후보생 139기로 훈련소에 입대했다. 지호 씨는 2000년도에 미국에서 태어나 미국 시민권을 받은 복수국적자였으나 이번에 입대를 결심하면서 미국 국적을 과감하게 포기해 많은 국민에게 신선한 충격을 안겨주었다. 그는 진해 해군사관학교에서 11주 과정의 기본 군사훈련을 수료한 후 함선에 배치되어 36개월을 근무하는 조건이지만 통역장교를 지원했다. 복무기간이 일반 육군 사병의 두 배에 가까운데도 해군 장교 임관을 택한 것은 아버지 이재용 회장의 권유가 있었다지만, 재벌 집 아들이라는 특혜와 편한 길을 버리고 가장 무겁고, 가장 길고, 가장 공적인 길을 선택한 것이라

할 이유가 있을까?”라는 질문이 나올 만큼 고된 부대인데도 그는 묵묵히 자신이 선택한 역할을 받아들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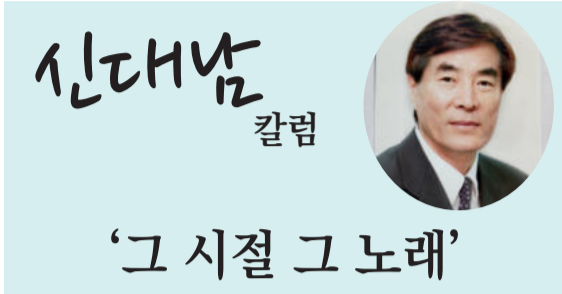
두 청년 모두 눈앞에 닥칠 고난을 피하지 않고 자신의 가문보다 국가가 먼저라는 생각으로 군복을 입어 그동안 말로만 들어오던 '한국판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실천이 아닌가 하는 안도감을 느끼게 한다.

그동안 한국 사회는 경제가 발전한 만큼 지도층의 도덕적 의무감의 실천은 그렇게 감동적이지 않았다. 알게 모르게 배경과 금전을 동원해 소시민들의 손에 있는 그것을 빼앗아 간 몰상식한 잔재가 아직도 여기저기 남아 있다.

하지만 변화는 거창한 선언이 아니라 조용한 선택에서 시작된다. 가려진 두 어깨에 나라의 미래를 짊어준 레오노르 공주처럼, 어느 누가 쉽지 않은 방향을 찾고, 또 다른 누군가가 그 방향을 향해 넓은 길을 만든다면 이러한 움직임이 결국은 시대의 품격을 바꾸는 시작이 될 것 같다. ☞

가요에 비친 기차역은 추억의 정거장

경부선도 호남선도 가슴 시린 노래 히트



<12>

대중가요에 곧잘 기차역이 등장한다. 그리고 그 기차역은 만남보다는 '이별의 부산 정거장'이고, 붙잡아도 떠나가는 '대전발 영시 오십분'이고, '비 내리는 호남선'이다. 또 여자인 내가 기다려야지 하는 자조의 '정거장'이고, '안동역에서' 바람에 날려버린 허무한 맹세다. 이처럼 대중가요에 비친 사랑은 예나 지금이나 가슴아린 이별의 상처가 본질이었다.

1954년 남인수가 노래한 '이별의 부산정거장'은 1950년 6·25가 터지고 2년 1개월의 휴전 협상 끝에 1953년 7월 27일 휴전협정이 체결되고 부산에 몰렸던 피난민 200만 명이 하루에도 수만 명씩 상경하면서 부산역은 노래 그대로 이별 슬픈 부산정거장이었다. 기적마저 슬피 울던 정한의 '이별의 부산정거장'은 2011년 제2회 대한민국 대중 문화예술상 보관문화훈장을 받기도 한 극작가 유호가 작사하고 한국 트로트의 시조 박시춘이 작곡해서 불세출의 가수 남인수의 대표곡 중 하나다. 서글픈 시대의 가사와 달리 경쾌한 멜로디가 심금을 더 울린다.

“보슬비가 소리도 없이 이별 슬픈 부산 정거장/ 잘 가세요 잘 있어요 눈물의 기적이 운다/ 한 많은 피난살이 설움도 많아/ 그래도 잊지 못할 판자 집이여/ 경상도 사투리에 아가씨가 슬피우네/ 이별의 부산 정거장// 서울 가는 십이 열차에 기대앉은 젊은 나그네/ 시름없이 내다보는 창밖에 기적이 운다/ 쓰러린 피난살이 지나고 보니/ 그래도 끊지 못할 순정 때문에/ 기적도 목이 메어 소리 높이 우는구나/ 이별의 부산정거장” 언제 들어도 가슴 저린 노래다.

또 1956년 여성 가수 안정애는 이별의 말도 없이 떠나가는 새벽 열차 '대전발 영시 오십분'을 노래했다. 그 시절엔 하행선이나 상행선의 기차를 타면, 대전역에서 내려 그날의 군부대 수송 열차가 다 지나갈 때까지 기다려 늦은 밤까지도 경부선이나 호남선을 갈아타고 목적지를 가야했다. 그 모습을 최치수가 작사하고 김부해가 작곡했다. 추운 밤 기차를 기다리며 대전역 플랫폼 매점에서 뜨끈한 멸치국수 한 그릇을 먹던 맛은 아직도 잊지 못할 추억이고 그리움이다. “잘 있거라 나는 간다 이별의 말도 없이/ 떠나가는 새벽 열차 대전발 영시 오십분/ 세상은 잠이 들어 고요한 이 밤 내만이 소리치며 울 줄이야/ 아아아아 보슬비에 떠나가는/ 대전발 영시 오십분”. 가슴에 와닿던 노래다.

그 시절 노래는 왜 그렇게 또 비가 내리던지. 1956년 손인호의 '비 내리는 호남선'은 손로원 작사, 박춘석 작곡으로 한 시대를 울렸다. 이 노래가 유행하던 그때, 마침 이승만 대통령과 신익희 후보



'이별의 부산정거장'을 노래한 불세출의 가수 남인수.



'대전발 영시 오십분'을 노래한 안정애.



한 시대의 가수였던 '비 내리는 호남선'의 손인호.



여인의 정한이 담긴 '정거장'을 노래한 김수희.



'안동역에서'로 대중의 공감을 얻어 스타된 진성.



지하철의 '정거장'을 노래한 K팝 가수 아이유.

가 대선을 겨루고 있었다. 인기가 높았던 신익희 후보가 호남선 열차를 타고 호남지역 유세를 가던 중 심장마비로 서거하는 사건이 있어 상관없는 정치 설화에 휘말리기도 했다. “목이 메인 이별가를 불러야 웁느냐/ 돌아서서 피눈물을 흘려야 웁느냐/ 죄도 많은 청춘이란 비 내리는 호남선에/ 헤어지는 인사마다 야속도 하드란다// 다시 못 올 그 날짜를 믿어야 웁느냐/ 속는 줄을 알면서도 속아야 웁느냐/ 죄도 많은 청춘이나 비내리는 호남선에/ 떠나가는

편곡을 바꾸고 리바이벌해서 히트곡이 됐다. 진성은 안동의 명예시민이고 안동역의 명예 역장이다. 안동역에서는 기차가 도착하고 출발할 때 '안동역에서'가 시그널 뮤직으로 나온다. 옛 안동역 앞에 '안동역에서'의 노래비가 있다.

우리의 추억과 그리움을 싣고 달리는 기차는 이제 지하철로까지 진화했다. 세계 최초의 지하철은 1863년 1월 10일 개통한 영국 런던의 메트로폴리탄선이다. 한국에서는 1974년 8월 15일 서울역에

1954년 남인수 '이별의 부산 정거장' 피난살이 설움 2021년 아이유 '정거장' 지하철역 풍경 그려

열차마다 원수와 같더란다.” 마치 정치의 비가처럼 들려 더욱 불리었다.

김수희는 1981년 여자인 내가 기다려야지라고 한 '정거장'을 작사, 작곡해 노래했다. “떠나가면 눈물을 짓고 돌아오면 미소를 짓는/ 바람처럼 스쳐가는 수많은 얼굴/ 안녕이란 인사를 하며 다시 올 날 재회를 두고/ 연기처럼 사라지는 먼 기적소리/ 정거장 이곳은 너와 나의 인생이 있는 곳/ 여자 여자 여자인 내가 기다려야지”라고 기차역을 나름으로 정의했다. 그 시절 내가 아는 김수희의 마음 그대로의 노래다.

그리고 2014년 진성이 '안동역에서' 기다려도 오지 않는 무정한 임을 노래했다. “바람에 날려버린 허무한 맹세였나/ 첫눈이 내리던 날 안동역 앞에서/ 만나자고 약속한 사람/ 새벽부터 오는 눈이 무릎까지 덮는데/ 안 오는 건지 못 오는 건지 오지 않는 사람아/ 안타까운 내 마음만 녹고 녹는다/ 기적 소리 끊어진 밤에”. 김병걸이 작사하고 최강산이 작곡한 '안동역에서'는 2008년 안동시의 홍보 노래로 만들었으나 반응을 얻지 못하고 6년 뒤인 2014년

서 청량리역까지의 1호선이 개통됐다. 2024년 현재 23개 노선에 624개의 역이 있고 그동안 19억 9천만 Km를 운행해 지구 5만 바퀴의 거리를 주행했다고 한다.

K팝 가수 아이유는 2021년 12월 자신이 작사하고 작곡한 지하철의 '정거장'을 잔잔하게 노래했다. “다음 정거장에서 만나게 될까/ 그리워했던 얼굴을/ 다음 과란불에는 만나게 될까/ 그리곤 했던 풍경을/ 해는 정해진 시간에 떨어지고 거리는 비어가는데/ 단 한 사람 어제와 같은 그 자리 떠날 줄을 모르네/ 투둑투둑 무심하게 빗줄기 세로로 내리고/ 빗금을 따라 무거운 한숨 떨어지는데/ 다음 정거장에서 만나게 될까 그리워했던 사람을...” MZ의 서정도 '라떼'의 사고와 별반 다르지 않은 아름다운 노래다. 우리 지하철의 역사도 어언 51년이 흘렀다. 기차의 문화와 함께 지하철도 아름다운 추억과 그리움의 교통수단으로 더욱 발전하기를 바란다.☞

<알림> 필자 개인사정으로 3개월간 연재 쉽니다.

오!내고향 경상북도 의성(義城)

‘얼음조각’으로 수놓은 빙계계곡 소나무 숲 장관



신대근
전 MBC 보도제작국장, 파리특파원



빙계서원(氷溪書院).

“바람은 대지가 내쉬는 숨결인가?”
莊子가 제물론에서 한 말이다.

이곳에서는 장자의 말이 사실로 느껴진다. 바위 틈새에서 스며 나오는 시원한 바람, 틈새를 들여다 보니 어둑한 밑자락에는 얼음까지도 보인다. 영상 30℃가 넘는 한 여름날 이게 무슨 조화인가 싶다.

이름하여 빙계(氷溪)계곡의 한여름 풍경이다. 내 어릴적 10세 무렵, 한 여름날 땀을 뻘뻘 흘리며 동네 형들과 30리길을 걸어 도착한 이 계곡은, 어린 눈에는 신비로움으로만 비춰졌다. 지금은 관광지로 조성돼 그옛날 원형을 버렸지만, 여름철이면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드는 이곳은 의성군 춘산면에 있는 빙계계곡이다.

얼음이 있는 바위 틈새는 빙혈(氷穴)이라 부르고 찬바람만 나오는 틈새는 풍혈(風穴)이라고 부른다. 캠핑장까지 갖춘 관광지가 돼버려 그 옛날의 운치는 어디로 사라졌는지 흔적도 찾아볼 수가 없다.

이곳에서 멀지않은 곳에 있는 빙계서원은 16세기 중반기 의성남부의 인재양성소였다. 이곳 사람들이 안동과 더불어 선비의 고장임을 자부하는 징

표중의 하나다. 의성출신인 회당(梅堂) 신원록(申元祿)은 남명 조식과 함께 학문을 닦다가, 1542년 중종 37년

근지역에는 큰 가뭄이 든다는 미신이 있었다. 지금이야 미신이라 여기지만 우리가 어릴적에는 모내기철에 비가

‘마늘의 고장’ 6월엔 상인들로 북새통

에 풍기군수로 부임한 주세붕선생이 우리나라 최초의 서원인 백운동서원을 열자, 선생을 찾아가 스승으로 모신 뒤 고향에 내려와 서원을 지었다. 장천(長川)서원이란 처음 이름은 후에 증축을 거치면서, 이 지역 이름을 따서 빙계서원(氷溪書院)으로 바뀌었고 지역 인재양성소로 자리매김했다.

인근 금성면 소재지인 탑리에는 중앙에는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경주 분황사 모전석탑과 함께 통일신라 전기의 귀중한 연구자료인 탑리(塔里) 5층석탑이 국보77호로 지정돼 잘 보존돼 있다.

탑리를 내려다보는 금성산은 531m의 그리 높지않은 산이지만, 이 산을 둘러싸고 전설적인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와 유명해졌다. 화산암으로 이루어진 금성산 정상에는 수백평에 이르는 평지가 있는데, 이곳에 묘를 쓰면 그 후손이 부귀와 명예를 얻을 수 있으며 그 반면 인

오지 않고 가뭄이 계속되면 “누가 금성산에 묘를 썼는가보다”며 면내 청년들이 합심하여 묘를 파헤치러 올라갔다는 얘기들을 심심치않게 들을 수 있었다. 탑리에는 선사시대 공룡 발자국이 발견돼 잘 보존되고 있으며 지금도 인근 초등학생들이 즐겨 찾는 명소로 자리매김 하고 있다.

의성하면 마늘의 고장으로 잘 알려져 있다. 의성의 한지(寒地)마늘은 맛이 좋고 보관성이 뛰어나 지금도 농산물시장에 가면 다른 마늘에 비해 크기는 작지만 값은 비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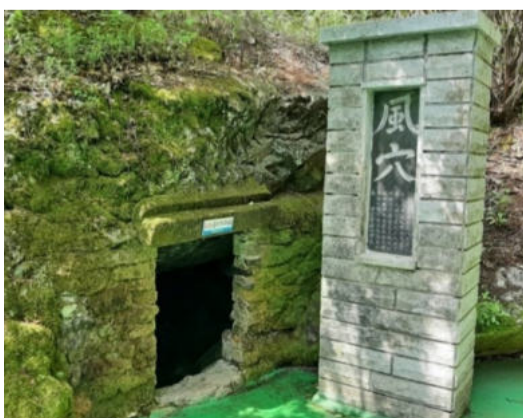
6·25 직후 우리 어릴적에는 유통과정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아, 마늘 수확철인 6월이 되면 의성읍을 비롯해 금성, 봉양, 춘산, 가음면 등 마늘 주산지에는 전국의 마늘상인들이 몰려들어 5일마다 열리는 장날 전날밤엔 여관방을 얻기가 쉽지 않았다. 5일장에서 사들인 마늘은 탑리역에서 화물열차에 실려 전국 각지로 수송됐는데, 그때 그리 번창하던 탑리역은 다른 수송수단의 발달과 함께 오늘날 폐역이 되고 말았다.

마늘 주산지 정도로만 중앙에 알려졌던 의성이 올해 3월 들어 유명세를 타고 한동안 신문지면과 TV화면을 장식했다. 의성 산불! 한 성묘객의 사소한 부주의로 일어난 산불은 거센 바람을 타고 의성뿐만이 아니라 안동, 청송, 영양을 거쳐 영덕에 이르기까지 경북 북부를 강타했고, 수많은 인명과 재산피해를 냈다. 다행히 울진 금강송 군락지까지는 불이 미치지 않았다.

이 산불로 의성에서 가장 유명한 사찰인 고운사(孤雲寺)는 가운루와 우화루 등 많은 보물들이 불에 타는 큰 피해를 입었다. 지난 10월 11일 고운사 대웅전 앞에서는 500여명의 관객들이 모인 가운데 고운사의 조속한 복원을 기원하는 피아니스트 백건우의 연주회가 열리기도 했다.

고운사는 창건 당시에는 高雲寺였으나 신라시대 문장가 최치원이 머물며 가허루와 우화루를 건축한 이래 그의 호를 따 孤雲寺로 절이름이 바뀌었다. 고운사에서 멀지않은 곳에는 2019년 최치원문학관이 건립돼 선생의 학문과 사상을 기리고 있고 지역 학생들이 즐겨찾는 명소로 자리잡고 있다.

이곳 출신 정치인 가운데 중앙에 잘 알려진 이는 박만원씨와 정창화씨, 강재섭씨 등이 있고, 관계에는 이경식 전 경제기획원장관이, 경제계에는 엄



풍혈

상호 전 건영그룹회장, 학계에는 김문환 전국민대 총장과 신진욱 협성학원 이사장이 있다. 그리고 언론계에서는 지난 5월에 별세한 남시욱 전 문화일보사장이 의성 출신이다.

지난해 3월 기준 경상북도는 전남에 이어 소멸위험도가 전국 17개 시·군 가운데 두 번째로 높은 지역이다. 경북지역 20개 시·군 중에서는 구미와 경산을 뺀 나머지 시·군들 모두 소멸위험지구다.

젊은 인구가 점점 농촌을 떠나 도시로 집중하다 보니 대부분 농촌으로 구성된 의성도 인구가 줄어들 수밖에 없고 소멸위기에 자유롭지 못하다. 몇년 전에 한 중앙일간지가 1면톱으로 보도한 전국의 소멸위험지역 특집 기사에서 본 사진 한장은 필자의 마음을 한층 아프게 하는 것이었다. 탑리역전의 모습을 촬영한 것으로, 집은 반쯤 무너지고 길 양쪽은 잡초로 뒤덮여 있던 그 사진 한 장은 농촌지역의 엄혹한 현실을 반증하고 있었다. 우리가 태어나고 성장한 정다운 고향이 소멸되지만은 않기를 간절히 기원해본다. ☞



이승만 건국 대통령 탄신 150주년 남산둘레길 5천여 명 시민 대행진



가을 하늘 아래 울긋불긋 물든 서울 남산은 대한민국 이승만 건국대통령의 혼(魂)이 강림해 불타오르는 듯 했다. 대한연론인회가 적극 참여하고 있는 '이승만 바로알기 전국연합'은 올해 이승만 초대대통령의 탄신 150주년, 서거 60주년을 맞아 11월 22일(토) 남산 둘레길에서 5천여 시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승만 대통령의 숭고한

독립투쟁과 위대한 건국정신을 기리고 그 발자취를 좇아보자는 취지의 "이승만과 함께 걷자" 시민대행진을 펼쳤다. 참석자들은 "요즘 우리 사회가 극도로 혼란스러운데 그럴수록 '몽치면 살고 흠어지면 죽는다'고 외친 이승만 대통령의 통합정신이 새로워진다"고 입모아 말했다. (이규진 총괄부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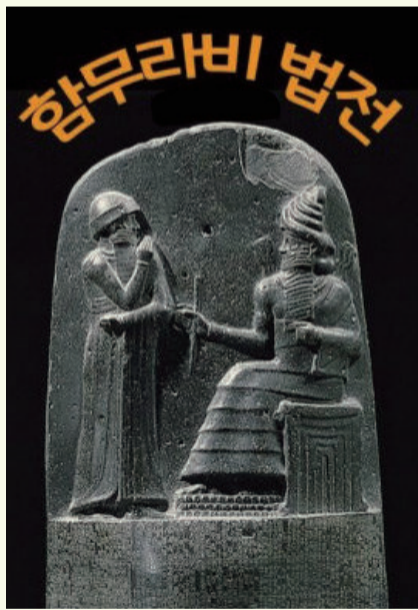
명품인생

'눈에는 눈, 이에는 이' 탈리오 법칙 실종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댄 것은 댄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이 구절은 성경 출애굽기 21장 24절에 나온다.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 보복의 원칙(탈리오의 법칙)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는 또한 '공평'에도 부합한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재판을 통해 분쟁을 해결해야 한다는 교훈으로 해석되기도 하지만 그 결과는 역시 잔혹사로 통한다.

탈리오의 법칙은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가해자에게 되갚을 때 동일한 보복만 허용하고 재복수를 금지해 사적 복수의 연쇄를 막는 고대 법질서였다. 무제한 복수를 제한하는 것이다. 반좌법(反坐法) 또는 동해보복법(同害報復法)이라고도 번역된다. 결국 가해와 복수의 균형을 취하여 응보적 정의감을 만족시킴으로써 사투(私鬪)를 종결시키려는 것이다. 제재도 피해자가 입은 해와 동일한 보복으로 제약한 점이 주목할 만하다. 오늘날에는 응보형의 순수이념형을 나타내는 말로 쓰이고 있다. 그런데



돼 있다.

그로부터 시간이 흘러 오늘날 대부분의 국가는 직접적 보복을 인정하지 않지만 어쩐지 요즘 우리 주변에선 영똥한 함무라비시대로의 회귀현상이 보이는 듯하다. 내란이라면 '내란에는 내란으로' 갚자는 것인가.

최근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수석 최고위원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더는 지체해서는 안된다"면서 "특검이 있으면 특판(특별재판부)도 당연히 있어야 한다"고 했다. 전담재판부야말로 조희대 사법부의 내란종식 방해를 막아낼 가장 확실한 안전장치라고도 했다.

민주당의 상대적 박-곱배기 복수 '눈살'

요즘은 이보다 더한 보복의 원칙이 적용되고 있다. 이것이 문제다.

BC 6세기께 고대 바빌론의 함무라비 법전에는 "다른 사람의 눈을 뽑은 자는 똑같이 눈을 뽑는다"고 돼 있다. "임신한 여자를 해쳐서 임신부와 태아가 죽으면 가해자의 딸을 사형에 처한다"는 등 대체보복 조항도 설정

유전무죄 무전유죄를 낳는 전관에 우를 근절하고 비리법관 징계를 실질화하자고 했다. 되로 받고 말로 갚자는 양상이다. 눈 하나를 뽑혔다면 눈 두 개를 뽑아도 된다는 식으로 탈리오의 법칙은 탈탈 털어버리려는 것일까.

예수의 산상설교는 "네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도 돌려대라"며 용서와 사랑을 강조하고 있다. 응보적 정의와 선명히 대조되는 부분이다.

성공하는 명품인생은 과오에 대한 사전의 강력한 경고가 확실한 도움이 된다. 경고란 조심하거나 삼가도록 미리 주의를 주는 행동이나 또는 그 주의를 말한다. 그러나 우리가 이 경고를 상대적 박박이나 압박수단으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 이를 무시했을 때는 이에따른 또 다른 큰 손해가 따를 수 있기 때문이다. '눈이 먼 자여, 경고를 읽으라'.

옛 현자들 역시 지금 삶과 죽음에 대한 문제를 생각하는 우리처럼 같은 고민을 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들에게 '어떻게 살 것인가?'와 '어떻게 죽을 것인가'는 같은 항목의 대칭이었다. 지금 죽은 자는 침묵하지만 그들의 묘비명엔 생전의 고인이 추구했던 가치관이 압축돼 있다.

조지 버나드 쇼의 묘비명 - 우물쭈물하다 내 이럴 줄 알았다/ 라이너 마리아 릴케 - 오오, 장미여! 순수한 모순의 꽃/ 박인환 - 사랑은 가고 옛날은 남는 것/ 스타달 - 살았다, 썼다, 사랑했다/ 프리드리히 니체 - 이제 나는 명령한다. Amor fati. 그대들 자신을 발견할 것을.☞

<강이산·극작가>

회우 광장

중국인들 토지보유 면적 '여의도 7배'

제주도 이어 수원거주 외국인 중 중국인 70% 넘어



김휴선
본회 회우
전 MBC 보도국 부국장

야채, 과일 가게는 중국인들 손안에

지난 10월은 추석이 들어 있는 데다 행사가 많아 바쁜 나날이었다. 필자는 아내와 아들, 셋이 사는데 아들은 회사 다니느라 항상 아내와 같이 장을 보러 다닌다. 지금은 실업자라 생기는 돈이 없으니 안사람은 돈을 절약하느라 시장에 가더라도 싼 가게를 찾는다. 요즘 재래 시장의 과일 가게와 채소 시장은 중국 사람들이 거의 점령하다시피 하고 있다. 우리 동네만 하더라도 이웃해 있는 중국인 가게 두 곳이 성업 중이다. 값이 다른 데 보다 10% 내지 20%는 싸다. 그러나 한 뼘을 아끼는 가정주부들은 자연히 싼 가게를 찾는다. 그 중 한 곳은 현찰로 물건을 파는 대신 20% 정도는 싸게 판다.

지난번 추석 장을 보러 안사람과 같이 여러 곳을 찾았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크다는 경동시장도 그렇고 동작구에서 제일 크다는 남성 사계시장 그리고 광명시장도 그렇다. 큰 야채나 과일가게는 대부분이 중국인이 운영하고 있었다.

제주도 이미 중국인 도시

지난번 어느 TV에서 인터뷰이(interviewee)가 제주도의 62%는 중국 사람들일 것이라고 말하는 뉴스를 들었다. 충격적이었다. 그러면서 "제주에 온 단체 중국 관광객들이 중국인이 운영하는 식당, 숙박, 쇼핑만 이용한다는 건 많이 알려져 있다"고 했다. 심지어는 중국인이 중국산 의료 장비로 치과를 운영하다 적발되기도 했다고 한다. 이는 정부가 대책없이 문호를 열어주고 아무나 받아들여서 생긴 결과라며 제주도 무비자 정책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대립동과 경기도 안산 등지는 여기가 한국인지 중국인지 이미 상권은 물론이



고 대부분의 큰 건물은 중국인들 소유가 된지 오래다. 중국인 매수 부동산은 경기 안산, 부천, 시흥 등에 집중됐다.

안산, 수원 등 많은 부동산 소유
중국 사람들에게 도시를 내준지 오

중국인 보유 땅 여의도 7배

지난해 토지 보유 외국인을 국적별로 분류해보면 중국인이 가장 많은 필지를 보유했다. 총 7만 7,714필지(41.2%)에 달했다. 중국인의 보유 면적은 2,121만㎡로 여의도의 7배 규모다. 이렇다 '외국 투기자본' 놀이터

아니다. 중국의 자본과 인구가 물 밀듯이 들어오는 데 이재명 정부는 쉬쉬하며 친 중국 정책을 펴고 있으니 한심할 따름이다.

하얀 광목이 빨간물로 염색 중
우리는 최근에 일어난 홍콩의 민주

대규모 중국인 소자본 유입사태 경계해야

라인데 심지어는 중국인들이 한국 사람들에게 물러가라며 피켓 시위도 하고 있다. 그래서 혐중 시위도 자초했는지 모를 일이다. 서울 명동에서 집중적으로 전개된 '혐중시위'가 경기도까지 진입이 확대되면서 악영향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렇게 중국인이 많다 보니 사건 사고는 물론이고 살인 사건도 심심치 않게 일어나고 있다.

지난해 경기도에 거주 중인 외국인인 80만 명 이상으로 전체 인구의 5.9%를 차지하며 전국에서 가장 많다. 특히 혐중시위가 진행된 수원의 경우 6만 8천 명으로, 안산 다음으로 외국인이 많으며 중국 동포, 이주 여성 등을 포함한 중국 국적의 주민 비율이 70%를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여기에다 국내 대학에 재학중인 인구를 더하면 국내에서 활동하는 중국인은 엄청나게 많을 것으로 추산된다.

가 될까 걱정이다. 중국인 매수 부동산은 경기 안산, 부천, 시흥 등에 집중됐다. 지금 중국은 우리나라의 채권, 부동산, 주식 등을 닥치는대로 사들이고 있다고 한다. 이처럼 중국 자본이 물밀듯이 들어오고 있어 걱정이다.

서해 어업 구조물은 한국 노린 것

정부는 중국의 춘절과 국경절을 맞아 무비자로 중국인의 입국을 허용하고 있다. 명동, 홍대같은 데는 외국인들로 발 디딜틈이 없다. 추석 연휴를 맞은 제주도는 물론이고 불거리가 있는 관광지는 중국 사람들로 초만원이다. 최근 뉴스에 따르면 미국의 '한국계 존노 동아시아 담당 부차관보'는 중국이 서해상에 세운 어업 구조물이 한국을 노리고 설치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런 상황으로 볼 때 중국은 알게 모르게 우리나라에 침투해 오고 있다. 정부는 손 놓고 있을 때가

화 항쟁을 똑똑히 보아왔다. 중국의 개입으로 홍콩은 이미 사회주의가 됐으며 사실상 중국에 종속 국가가 되고 말았다. 마카오는 어떤가. 이미 마카오도 중국의 손아귀에 들어간지 오래이며 이들은 호시탐탐 대만을 자기들의 속국이라고 큰 소리치며 호랑이가 발톱을 내밀고 있지 않은가. 우리나라도 중국의 소자본들이 알게 모르게 들어와 경제와 사회분야를 서서히 잠식하고 있다.

이들은 확인도 되지 않은 같은 조선족이라면서 한국 사람들 행세를 하고 있다. 여기에다 좌파 정부의 친 중국 정책에 힘입어 서서히 나도 모르게 우리가 중국 공산당 모드로 들어가고 있다. 필자가 보기에 천을 염색할 때 생기는 것처럼 '하얀 광목이 빨간물로 서서히 물들어 가고 있는' 형국이다. 그 어느 때보다 보람된 여행이었다. ☞

회우 칼럼

80代도 청년처럼 지낼수 있다



윤재홍
본회 논설위원
전 KBS 제주방송총국장

일요일 아침이다. 걷기 운동을 위해 집을 막 나서려고 할때였다. 초등학교 동창생으로부터 전화가 걸려왔다. 자신의 팔순잔치 산수연(傘壽宴)에 초대한다는 내용이다. 필자는 깜짝 놀랐다. 필자의 나이도 올해가 팔순이라는 사실 때문이다. 이제 필자도 인생의 종착역인 죽음에 가까이 가고 있다는 사실을 초등학교친구 전화 한 통으로 생각지 않은 충격과 무서운 공포를 느꼈다.

필자는 10년전 한 언론인 선배가 쓴 '팔순이 되면서'라는 제목의 칼럼을 관심있게 읽은 기억이 났다. 당시 필자는 10년 이후 일어서서 관심도 없었다. 그냥 잊기로 했다. 그런데 이렇게 빨리 10년 후의 나이 공포가 찾아온 것이다. 이제 본격적인 중노인의 삶으로 가는구나 하니 한없이 서글펐다.

산수연은 우리나라의 전통적으로 내려온 80세 생일을 기념하는 잔치이다. 산(傘)은 우산을 뜻하고 수(壽)는 장수를 의미하고, 연(宴)은 잔치를 나타낸다. 전통적으로 산수연은 중요한 가족행사로 80세 어르신의 오랜 세월을 건강하게 살아온 것을 축하한다. 따라서 산수연의 행사는 가족 중심으로 한복을 입고, 전통음식을 나누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된다. 그러나 현재는 대규모 가족잔치대신 가족여행이나 소규모 모임형태로 변하고 있다.

최근 통계청의 국민사망현황을 2022년도에 집계한 것을 보면 남성은 69세 사망자는 34.3%, 79세까지 사망자수는 59.3%이다. 우리나라 남성 40.7%가 80세 이상 산다는 통계가 나왔다. 이 통계를 보면 평균수명이 늘어나고 노년건강이 개선되고 있지만 아직 100세시대는 희망사항이다. 90세이상 생존율은 남성8%, 여성26.9%로 나왔다. 여성은 100세시대에 가까워지고 있으나 남성은 아직 먼 이야기다.

나이 80세가 되면 일단 고령에 접어들면서 정신과 육체의 변화가 온다



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의학계에 따르면 팔순나이가 되면 곧 해내는 일에도 흥미가 줄어들고, 즐거움도 작아진다. 이렇게 되면 삶의 의미가 떨어져 안타까워진다. 사람마다 차이는 있지만 이것은 받아들여야 한다고 의사들은 말하고 있다.

장수하는 사람들의 신체는 수명이 길어지면서 병이 몸 안에 있어 치료가 쉽지 않다고 한다. 걷기 운동량도 줄어든다. 보통 70세에 하루 7천보를 매일 걸었으나 80세가 되면 자연히 5천보로 줄여서 걸어야 한다. 더구나 복용하는 약도 늘어난다. 고혈압, 당뇨, 무릎관절등 노인들이 주로 복용하

들은 트럼프대통령을 보면서 새로운 용기와 젊은 청년의 건강을 자랑하는 모습에 새 희망을 가졌으면 한다. 트럼프대통령은 '나는 젊고, 활기차다.'라는 구호를 미국 전지역에 외쳐 지지자들의 환호를 이끌어 내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현재 트럼프는 고혈압, 당뇨등 만성질환약을 복용하고 있지 않다고 한다. 다만 콜레스테롤 강화제만 복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는 또 금주, 금연 실천생활습관도 건강유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고 한다. 참고로 트럼프 아버지 프레드 트럼프는 94세. 어머니 메리 팩플라우드스는 88세까지 생존했다.

매일 공원 5천보 걷기로 건강유지

는 난치병약들이 늘어난다.

의사가 처방한 약들은 철저히 시간을 지켜 복용해야 한다. 다만 몸보신 용등 의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은 약품과 보조식품남용은 철저히 배제해야 한다. TV나 신문의 상업적인 광고에 현혹되어 의사가 처방해준 약보다 광고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보조식품 남용이 많아 80대 이후 노인들의 건강을 크게 해치고 있다고 한다.

한 대학병원전문의를 노인환자 대부분이 병원치료에 대한 질문보다 자신의 질병과 상관이 없는 한약이나 보조식품을 먹어도 되느냐는 질문들이 너무 많아서 곤욕을 치른다고 한다.

그러면 나이 80세가 되어도 건강관리를 잘해 100세시대로 갈 수 있는 길은 없을까? 나이 80세가 되어도 젊은 청년처럼 살 수 있는 길을 찾아보자. 미국 도널드 트럼프대통령은 1946년 6월14일에 태어나 미국 나이로 79세이지만, 우리나라 나이로는 팔순이다. 우리나라에서 팔순을 맞는 모든 사람

트럼프대통령이 건강상태를 잘 유지하고 있는 비법은 1.명확한 삶의 목표 2.활발한 사회활동 3.정기적인 야외활동과 햇빛을 받으며 건강유지를 위한 정기적인 골프운동 4.자기 외모에 대한 적극적 관리 5.스테이크와 햄버거 등 단백질 섭취등이다.

우리나라에서 청년처럼 살기 위한 80세 건강유지에 대한 방법을 찾아보았다. 첫째, 자신이 스스로 젊다고 생각하면서 살아야 시간이 흐를수록 건강한 삶을 사는 경향이 많은 것으로 밝혀졌다. 둘째, 80세에서 젊게 사는 것은 필수적이다. 자신이 나이보다 젊다는 긍지를 갖고 사는 사람들은 우울증과 치매위험도 낮아졌다고 한다. 셋째,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유전자보다 '먹기' '움직이기' '스트레스피하기' '사회적 유대관계 갖기'등의 기본원칙에 충실하면 늙지 않는 삶에 한걸음씩 가까워질 수 있다고 한다. 넷째, 한 의학자는 "죽음은 노화의 결과이지 나이탓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노화를 피하기 위해 노화자

송년시

가라! 전쟁이여

엄청난 인명이 숨져간
인간 도살
양차 대전의 시대
20세기를 보내고
꿈과 희망으로 맞은 21세기
20여 년을 지내며
우크라이나, 팔레스타인에서 들려
오는 포성과 비명, 통곡을 듣는다.
질병이 진정되자
또다시 인간에 의한 살육
평화는 진정 없는 것인가?
인공지능의 시대 도래는
인류에게 궁극적인 질문을 던진다.
신은 있는가?
인간의 한계는 어디까지인가?
자신이 살아가는 터전을 허무는,
스스로 자멸의 길을 가는 인류여.
저 창공의 별들 가운데
미래 인류가 깃들 수 있는 곳이
과연 있는 것인가?
전쟁의 기억과 불길한 예감을 안고
저무는 한 해.
지혜가 구원이 되지 못함을
절절히 깨달으며 통회하고 간구한다.
인류여
생명이여
양심의 소리들이여
함께 살아가는 모습으로
밝아오소서
부디 그리하소서.

유 자 호
본회 회우, 전 한국시인협회장

체를 질병으로 인식하고 밥상과 생활 리듬을 바꾸어 노화자체에 도전해 80대의 건강유지를 하지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다섯째, 몸은 늙어가지만 마음은 늙지 않는다는 정신으로 무장해야 한다. 여섯째, 소식을 습관화해야 한다. 1999년 프랑스 몸벨리의 한 국제회의에서 장수에 대한 놀라운 결과가 나왔다. 이탈리아 서남부 사르테냐 자치주 또 일본 오키나와 역시 인구 1만명당 6.5명의 100세 인구가 살았다. 이 두 지역 모두가 배부르기 전에 30% 덜먹기 식사법실천으로 장수촌이 됐다고 한다.

우리는 30세까지는 취업을 위해 배움의 기간. 60세까지는 각종 직장에서 정년까지 일했던 기간. 70세까지는 직장에서 나와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알뜰한 시간을 보냈다. 이제 80세부터는 다시 청년의 나이로 90세까지 재미, 열정, 즐거움, 여행등 꿈을 이루어 20년 후 100세시대까지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새로운 개척의 길을 향해 전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연회비 감사합니다

연회비 납부 : <2025.10.28 ~ 2025.11.25>
<괄호 안은 연도, 단위 ; 원>

■ 연회비: 30,000원 ■ 평생회비: 300,000원
계좌 번호 : 농협 056-01-105628
예금주 대한언론인회

회 비

구자건(2024) 30,000	이재호(2021~2023) 90,000
이재권(2020~2022) 90,000	박준구(2026) 30,000
이재승(2023~2024) 60,000	김휴선(2023~2024) 60,000
박창학(2025) 30,000	이병삼(평생회비) 300,000
심의표(2025) 30,000	신정호(2025) 30,000
송창기(2023~2025) 90,000	김동철(2023~2024) 60,000
전민조(2024~2025) 60,000	박원배(2023) 30,000
박갑술(2025) 30,000	정구종(2023~2025) 90,000
이창호(2025) 30,000	이병훈(2026) 30,000
이윤래(2025~2026) 60,000	박현수(입회비,2025) 330,000

회우가 낸 새책

AI는 영혼이 없다 - 유자호 시집 『시와 詩』



시력 57년의 유자호 시인이 팔순을 앞두고 스무 권째 신작 시집을 출간했다.

자유시 59편과 시조 13편으로 구성되어있는 이번 시집에서 유 시인은 인공지능(AI)이라는 미증유의 현상과 시와의 관계 정립을 모색한다. '제목만 주면/금방 똑딱/한 편 써내는' AI 앞에서 '몇날 며칠을 끙끙대고도/시 한 줄 못쓰는' 무력감에 절망하여 '이제 그만 작파할 때가 온 것 아닌가?'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AI가 쓴 시가/인간을 구할 수 있겠는가?' 'AI로 시를 쓰게 하고/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는 것인가?'라는 의문에 당도하면서 마침내 답을 찾는다. 즉 '기존자료들의 종합'인 'AI가 만든 시'는 '표절의 위험이 있어' '지금처럼 AI의 도움 없이 시를' 쓰기로 한다. AI는 영혼이 없다. 이는 창의성이 생명인 시를 비롯한 예술작품의 창작에 대한 현재로서의 정의가 될 것이다.

『시와 詩』는 2023년 말에 출간된 19시집 『시간의 길이』 이후 쓴 신작들이 중심이다. 그동안 시집 수록을 피해오다가 자신을 정리하는 심경으로 수록한 작품들도 포함돼 있다.

『思親文學』 2025년 호



백교효문화선양회 이사장 권혁승 본회 원로회우(전 한국일보 편집인)가 우리 전통의 효 사상을 함양하고 세계화하기 위해 발행하는 연간 문학지 '사친문학' 2025년 호가 출간됐다.

사친문학은 신사임당이 어버이를 그리는 마음에 지은 한시 '사친시(思親詩)'에 기원을 둔 것으로 효 사상을 담은 문학을 가리킨다.

이번 호에는 쇠퇴하는 우리 정신문화를 사친사상의 창달로 극복하기를 바라는 장석영 대한언론인회 회장의 축하글과 함께 소설가 이호철의 '어머니의 영혼과 함께 쓴 작품'이란 타이틀의 사모곡, '서낭당 돌무더기 옆을 지날 때마다' 등 시와 수필, 백교문학상 수상 작품 등이 담겼다.

백교효문화선양회간

주소 및 연락처 변경

김동철 회우 인천광역시 서구 마전동 1164-10 가현그랑빌 3차 301호
이달영 회우 서울 종로구 인사동길 17-1, 2층

회우 동정

‘할미꽃 당신’ 국보문학 수필 대상 선정



장석영 본회회장(시인·수필가)이 올해 출간한 수필집 ‘할미꽃 당신’으로 2025년도 국보문학 수필부문 대상을 수상한다. 시상식은 12월 5일 오후 2시 국보문학관에서 거행된다. ‘할미꽃 당신’은 평범한 청춘남녀가 만나 55년을 해로(偕老)하다 아내가 죽음에 이르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느낀 회한(悔恨)을 수필방식으로 기록한 이야기들이다.

설문경장학재단 회장직 후배에 인계



김충한 회우(이 앤엑스 회장·전 한국일보 부사장)는 40년전 설문경장학재단을 설립하고 회장직을 맡아오다 최근 사임하고 후배에게 회장직을 인계했다. 이 재단은 당시 재일교포 설문경씨가 기금을 낸 것을 토대로 설립, 신문배달 소년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한다. 장학금을 받은 소년은 총 1586명에 이른다.

‘케데헌’이 몰고온 K컬처 열풍 특강



전인하 회우(전 MBC 생방송뉴스국장·수원대 교수)는 지난 11월 19일 최명우 회우(본지 편집위원장)가 이끄는 보엠클래식 인문예술강좌에서 ‘케데헌’(Kpop Demon Hunters)이 몰고 온 세계의 K컬처 열풍에 대해 특강했다.

만보회 경북궁 둘레길 송년 산책 성료



대한언론인회 만보회(회장 최귀조)는 지난 11월21일 창립 3주년 송년걷기 행사로 경북궁 둘레길을 산책했다.

이날 참석한 20여 명의 회원들은 화창한 늦가을의 풍경을 즐기며 창립 두 번째로 전원 1만보를 달성하는 건재를 과시했다. 또한 참석자들에게 고급 가죽 혁대를 송년 선물로 나눠줬다.

참석한 회우는 강두모, 김기원, 김사모, 김조영, 김윤찬, 김홍운, 박교원, 박원배, 박종서, 안종우, 안홍렬, 설임윤, 윤석웅, 이우진, 장 옥, 조명동, 조희곤, 최귀조, 최영배, 황우연.

언론가 소식

허위조작정보 규제 일부 법률안 반대

한국신문협회는 지난 11월 12일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규제를 담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최민희 의원안, 윤준병 의원안)’에 대해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약하고 과잉금지 원칙 등에 위배된다”며 반대입장을 밝혔다.

김형진 한국편집기자 협회장 피선

김형진 중앙일보 편집부장이 지난 11월 25일 제52대 한국편집기자협회장에 당선되었다. 임기는 내년 1월부터 2년이다.

연회비는 회원의 자존심입니다.

월간 대한언론

Korea Journal

- 발행인 겸 편집인 장석영
- 주 필 이도선
- 총괄부회장·사무총장 이규진
- 편집위원장 최명우
- 편집국장 송창기
- 발행처 (우) 04520 서울 중구 세종대로 124 프레스센터 1405호
- 등록번호 서울 라 12013
- Email : kjc1405@kjclub.or.kr
- 홈페이지 : www.kjclub.or.kr
- ☎ 02)732-4797/4798
- 02)2001-7621
- Fax 02)730-1270

기자의 혼
꺾이지 않습니다



 **한국기자협회**
 JOURNALISTS ASSOCIATION OF KOREA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4
 한국프레스센터 1303호

튼튼한튼튼하게
K스포츠의 미래를 준비합니다

튼튼하게
탄탄하게
튼튼하게

K스포츠 컨트롤 타워
올림픽회관

국가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K-스포츠 크리에이터

스포츠와 문화, 교육과 산업을 융합한 창의적인 K-스포츠로
KSPO가 대한민국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고 있습니다



몸과 마음을
튼튼하게



스포츠 사업을
탄탄하게



스포츠 재정을
든든하게

•스포츠 복지 •스포츠 산업 •올림픽 유산 •체육인재 육성/지원 •기금조성사업 •KSPO스포츠단

KSPO 국민체육진흥공단